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0년 8월
박사학위논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 보성빨배어업을 중심으로 -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정 재 훈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 보성빨배어업을 중심으로 -

Tourism Revitalization Plan by Branding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 With Focus on the Boseong Tidal Flats Fisheries -

2020년 8월 28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정재훈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 활성화 방안

- 보성빨배어업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남 훈

이 논문을 디자인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디자인경영학과

정 재 훈

정재훈의 박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임 채 형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장 재 욱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 진 욱
위 원	전남대학교 교수	남 호 정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 남 훈



2020년 7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표차례	v
그림차례	vii
국문초록	ix

I. 서 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1.1. 연구의 배경	1
1.2. 연구의 목적	2
2. 연구범위와 방법	4
2.1. 연구의 범위	4
2.2. 연구의 방법	5

II. 이론적 고찰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본질	7
-----------------------	---

1.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 및 기능	7
1.2. 국가중요어업유산 세계농업유산등재의 필요성	14
1.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등록 기준	21
1.4.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범위	24
1.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현황	26
2.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 효과 및 활용	35
2.1.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의 가치	35
2.2. 어업유산의 관리와 진정성 보존	36
2.3. 체험관광의 활용가치	38
2.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42
3.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의 관광상품화	46
3.1. 관광상품화 방향설정	46
3.2. 관광상품화 목표	47
3.3.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	48
Ⅲ. 갯벌과 보성 빨배어업의 일반현황	
1. 갯벌의 특성과 가치	52
1.1. 갯벌의 특성과 분포	52

1.2. 갯벌의 가치	59
1.3. 바덴 해 연안 갯벌의 개발과 보전 사례	66
2. 보성빨배어업의 일반적 가치	71
2.1. 빨배의 유래와 명칭	71
2.2. 빨배의 이용 및 제작방법	72
2.3. 보성별교꼬막 주산지 형성 및 명성	75

IV. 보성빨배어업의 관광상품화 방안

1. 보성빨배어업 관광상품화 방향성	77
1.1. 사회 문화적 분야	77
1.2. 교육적 가치 분야	80
1.3. 관광적 가치 분야	81
2.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82
2.1. 보성빨배 스토리텔링 개발	83
2.2. BI개발 및 캐릭터 개발	87
2.3. 보성빨배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99
2.4. 보성빨배 관광기념품 및 문화상품 개발	108
2.5.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117

2.6. 보성빨배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추진 120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25

ABSTRACT 128

표 차 례

[표 2-1] 어업유산의 기능	9
[표 2-2] 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례와 유형	17
[표 2-3]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기준	23
[표 2-4]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평가등급	24
[표 2-5]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현황	41
[표 2-6] 관광상품화 목표 설정	48
[표 3-1] 우리나라 갯벌 분포 현황	53
[표 3-2] 람사르습지 등록 현황	58
[표 3-3] 보성 별교갯벌의 람사르 등록	59
[표 3-4] 국토해양부의 보성군과 고창군 갯벌 보전가치 추정	62
[표 3-5] 전라남도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현황	64
[표 3-6] 전남지역 습지보호구역 지정현황	65
[표 3-7] 빨배의 부분 명칭 및 기능	73
[표 3-8] 빨배의 제작 과정	74
[표 4-1] 이해관계자 및 역할	78
[표 4-2] 스토리(Story)구현 적용 분야	87

[표 4-3] 보성군 주요 관광지 118

[표 4-4] 보성군 주요축제 현황 119

그림 차례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6
[그림 2-1] 어업유산의 개념과 유·무형 요소	7
[그림 2-2]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준비와 심의 절차	19
[그림 2-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범위와 대상	25
[그림 2-4] 제주 해녀어업	26
[그림 2-5] 보성 빨배어업	27
[그림 2-6] 죽방렴어업	29
[그림 2-7] 신안 천일염업	30
[그림 2-8] 지주식 김 양식어업	31
[그림 2-9] 갯벌낙지 맨손어업	32
[그림 2-10] 재첩잡이 손틀어업	33
[그림 2-11]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어업유산 후보자원 현황	37
[그림 2-12] 어업유산 관광상품화 과정	46
[그림 3-1] 우리나라 전국 갯벌분포현황	54
[그림 3-2] 벌교갯벌 흑두루미와 흑부리오리	60
[그림 3-3] 바덴 해의 지형 분류도	67
[그림 3-4] 솔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미어 국립공원	70
[그림 3-5] 전통빨배 및 전통빨배 경주대회	72

[그림 3-6] 빨배의 힘방지대 및 매미	73
[그림 3-7] 빨배 이망 성형 과정	74
[그림 4-1] 보성빨배어업 관광상품화 설계	83
[그림 4-2] 스토리텔링의 개념 구조	84
[그림 4-3] 스토리텔링 형성을 위한 기준	85
[그림 4-4] 스토리(Story)구현 적용 방향	86
[그림 4-5] 장흥시장 브랜드 및 조형물과 민속광정 전경	96
[그림 4-6] 정선아리랑시장 전경과 공연행사장	97
[그림 4-7] 구로시오시장 전경과 참치해체 쇼	98
[그림 4-8] 보케리아시장 전경	99
[그림 4-9] 특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코스 개발방향	99
[그림 4-10] 관광기념품개발 Flow chart	109
[그림 4-11] 보성군 관광안내도	117

국문초록

우리나라가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에 기반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를 마련한 것은 2013년이다. 최근까지 국가중요어업유산 7개소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가 부활되면서 농업유산에 포함되어 있던 어업유산을 분리해 추진주체를 명확히 하면서 해녀, 죽방렴, 뽕배어업 그리고 염전 등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제사회는 미래가치로 평가되는 생물다양성과 문화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이 전통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문화다양성, 전통지식 등 도시화와 산업화 그리고 난개발로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치를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이다.

국가중요농업유산과 마찬가지로 국가중요어업유산도 유산을 보전하고 관리하여 후세대에 전승하는 것과 유산의 다원적 가치를 창출하여 어업유산브랜드화와 관광자원화를 목적으로 하는 활용방안까지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 및 관리는 생물다양성의 증대, 생물자원 전통지식의 보호 및 활용, 생태계서비스의 가치창출과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추구하는 가치이며 어업유산의 목표인 전통어업기술의 지속과 유지를 위한 시스템구축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전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확장성이 매우 크다. 보성뽕배어업유산은 지역의 독특한 갯벌과 바다의 이용과 어업문화, 어업어촌경관, 염생식물과 해양동식물의 다양성 등 어업시스템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활성화를 이루고자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을 신청하여 2015년 지정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통적 어업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해양경관, 해양문화, 어업활동 등 모든 산물을 말하며, 어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생태적 환경에 적응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진화해 온 것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전통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전통어업이나 전통지식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범위는 전통적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과 전통어업활동으로 형성된 범위의 공간이 포함되며 바다는 물론 해양 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을 모두 포함한다. 어업유산이 특정 어법이나 관련 장소를 지정하지만, 무엇보다 전승자의 유무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에서 전남지역은 갯벌어업의 비중이 큰 곳이며, 빨배는 갯벌에서 이동과 수송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어업도구이다. 따라서 이 두 요소를 관광활성화의 흥미를 끌어내는 가치로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 또한 보성빨배어업은 국가습지정책과 밀접하게 연결되고 대부분 공동마을어업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곳은 연안습지에 해당된다. 특히 갯벌과 연안습지의 빨배어업은 마을어업공동체의 공간으로 중요하다. 이곳은 현재 습지보호지역, 람사르습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갯벌세계유산 등 다양한 해양보호구역으로 구획되어 있다. 따라서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광활성화 추진전략을 수립할 때도 해양생태자원의 보전전략과 맥락을 같이하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지역의 가치나 관광활성화를 위한 활용에서 어업가치를 포함한 해양문화보전과 활용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물론 어민들마저도 어업유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지어 해당 지역 주민들도 어업유산을 알지 못하며, 알고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어업유산을 정책사업의 하나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따라서 보성빨배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은 어업문화와 어민의 삶에서 시작되어야 하며 연안습지와 어장의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어업인의 소득과 수산물을 소비하는 소비자, 어업유

산관광이나 해양문화관광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 어업인은 지속가능한 어업활동, 소비자는 어업유산의 가치를 존중하는 소비와 어업유산지역에서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여행을 하는 활동의 출발을 어업유산 특히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시작해야 한다. 또한 청산도 구들장논이나 제주 발담처럼 국가중요어업유산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여야 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더불어 어업유산의 전수를 위한 인력양성프로그램이 추진이 필수적이다. 보성빨배어업의 경우 빨배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제작 기술이 전승되어야 하는데 이는 개인이나 지자체의 힘으로 유지하기 어려우며 지역주민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그리고 유산지역 방문객과 함께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에 있어서 스토리텔링과 브랜드화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 지자체가 자신들만의 브랜드나 캐릭터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새로운 캐릭터를 계속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은 지역적인 특성과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지역이미지로 브랜드와 캐릭터를 만들어 그에 생명력을 불어넣고자 함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또한 어업유산지역이 가진 이미지가 연계되도록 사전에 기획되어야 하며 특히 더 나아가 어업유산지역이 가진 다양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요소들을 통합적으로 연계시켜 이를 브랜드 및 캐릭터와 접목함으로써 어업유산관광이 단순한 보기형태의 관광에서 진화하여 지역 속에 담긴 스토리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태의 관광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보성빨배어업유산의 스토리텔링에 기반을 둔 브랜드화의 예시를 제시하였고 단순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에 적용하고 활용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광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보성군의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켜 관광활성화의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 연구의 배경

국내의 수산업현황을 보면 2001년부터 수산물수입량이 수출량을 초과하기 시작하면서 수산물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세계무역기구다자간협상(WTO/DDA)에서 수산보조금의 대폭 축소가 논의 중이며 각국과의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은 수산물 시장개방의 압력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어업유산 행정 전반의 조직과 인력 및 예산이 열악하여 어업유산 활용 활성화의 한계가 존재하며 갯벌의 매립과 간척에 대한 반성으로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자연생태의 갯벌을 지키는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갯벌어업의 육성은 기존의 마을어업공동체 또는 갯벌 생태계의 보존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경제의 산업화에 따른 개발 압력의 증가로 갯벌 면적이 1987년 3,206km²에서 2008년 2,489km²로 축소되어 왔으며 갯벌어장 주변의 육상기인 오염원 증가와 어업 폐기물 및 유류 피해 등의 해양오염원 발생으로 갯벌어장 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¹⁾

현대사회에서는 사회변화와 문화 변동이 급격하고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업 자원을 단지 과거의 유물로만 보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어업유산이 새로운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되어 미래세대에 전달될 수 있도록 어업유산의 가치를 재인식하고 발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어업유산의 보존의 목표를 ‘무엇을 대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부터 ‘왜, 누구를 위하여 보존하는가’의 문제 의식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²⁾ 세계적으로 환경변화와 경제발전에 따라 어업인 및 어촌정책과 계획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생산량 증대와 품종개량과 같은 어업활동과 그 산출물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근래에는 기존의 어업에서 탈피하여 어촌마을 또는 어촌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

1) 김덕성. 두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방안. 2012영광군 보고서. P.43. 참고

2) 정상우. 문화유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연구보고서. 2013. P.109. 참고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또한 각 지역에서는 아름다운 농어촌 풍경의 지속적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세계중요농업유산지정을 추진함으로써 농어촌 자원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세계농업유산 등록 추진을 위해 2013년부터 보전, 전수, 활용이 필요한 농어촌의 자원을 농어업 유산(遺産)으로 지정하여 보전체계 구축과 함께 지역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³⁾

이 같은 정책 추진은 먼저 우리나라 농어촌 유산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정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및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확대 등 세계 환경변화에 따른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농어촌 발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다각적인 활용을 통하여 우리 어업유산을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어촌 유산의 발굴 및 보전계획의 수립과 보전활동 과정에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주민참여에 의한 다각적인 활용을 통해 지역문화와 활성화를 이루어야 한다.

1.2. 연구의 목적

2015년 12월에 보성군 별교읍 빨배어업이 해양수산부 주관 국가어업중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유산 지정제도를 신설하고 사라져가는 어촌의 전통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고유의 어업유산으로 보전 관리해 전승하고 지역의 가치를 창출하고 활용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다. 별교의 지역전통적인 어업유산자원의 보전 및 관리, 생산성 증대 등 일차적인 성과는 물론, 관광산업 등 3차 산업과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어촌관광, 문화관광 등과 접목시키기 위한 브랜드화 과정과 어업유산관련 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개발로 나아가며 어촌 발전의 새로운 모티브 역할을 이루어야 한다.

3) 강승진. 제주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추진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5. P.21. 요약정리

과거 산업화와 경제발전 시기에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유산관리 행정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최근의 유산관리 행정과 유산정책은 보호와 활용이 함께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시기라고 할 수 있고 민족적, 예술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환경적, 국제교류 및 친선을 위한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문화 향유와 문화적 권익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선진 어업국가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유효하고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육상이나 수상과는 달리 이질함량이 높은 갯벌이나 늪지에서의 이동수단으로는 고가 항공엔진이나 프로펠러 구동에 의한 호버크래프트(Hovercraft)가 있으나, 이러한 장비는 고가이고 조작성 복잡하여 사용하기가 어렵다. 또한 어촌에서 조업하는 사람들 중 젊은 사람들이 도시로 계속 유출되어 고령화되고 부녀자중심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작업 노동력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서 갯벌 작업에서 사용할 운반기를 도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⁴⁾ 산업적으로 국내 갯벌의 자원가치는 농지에 비해 10-20배의 가치를 보유한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서남해안에 다양한 생태와 천혜의 자연경관과 더불어 발달된 갯벌습지의 가치는 무한하다. 그러나 최근 무분별한 간척과 개발로 많은 갯벌과 습지가 사라지고 있어 개발과 보존이라는 차원에서 나머지 갯벌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체험 및 생태관광으로 자원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갯벌 어가들의 줄어든 생활터전을 보존하고, 갯벌생태마을을 조성함에 있어서 갯벌어가들의 어획작업 조력은 물론 국내 서남해안의 잘 발달된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갯벌관광자원화의 극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다.

현대의 문명이 급속히 발전하고 미래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문화유산을 후손들에게 어떻게 보호하여 전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변동에 따라 보다 문화의 매력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문화유산의 활용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한다. 전국이 1일 생활권으로 탈바꿈하고 있으며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추세에 따라 삶의 여유를 찾는 관광객의 성향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활성화는 갯벌습

4) 백신영. 안병원, 김도희. 갯벌조업 효율화를 위한 운반기 개발.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Vol.13 No.- [2005]. 2005. P.30. 참고

지의 활용가치와 아울러 갯벌 어업의 생활터전을 보존하고, 갯벌생태마을 조성
 브랜드화는 필수적이며 이러한 취지에서 신개념의 갯벌 조업 효율화를 위한 정책
 을 개발하고 부가적으로 갯벌 추진메커니즘에 따른 갯벌탐사선, 갯벌보트, 갯벌스
 쿼터 등의 레저장비산업의 발달을 도모하며 갯벌어기들의 어획작업 조력은 물론
 국내 서남해안의 잘 발달된 천혜의 관광자원과 더불어 갯벌관광자원화의 극대화
 를 위한 촉매제로 보성빨배어업이 활용되어야 한다.

2. 연구범위와 방법

2.1. 연구의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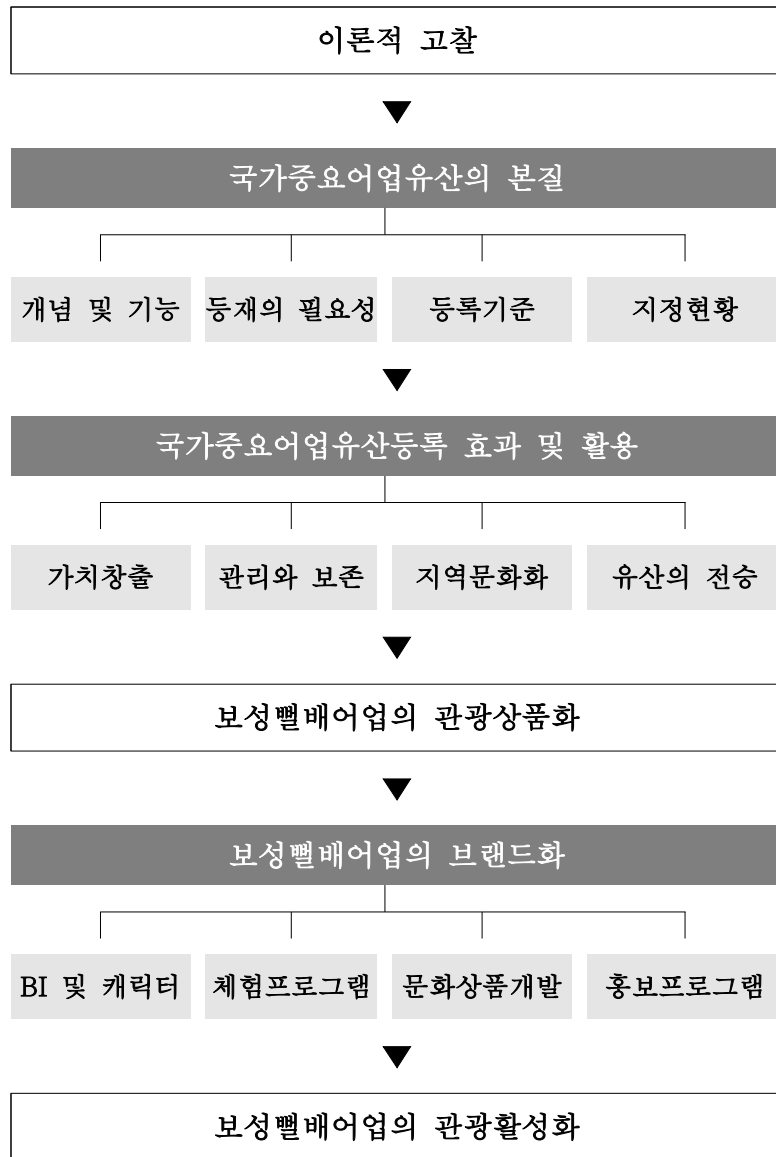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최대 꼬막생산지인 전라남도 보성군에 소재한 별
 교지역의 빨배어업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관
 광 상품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통한 서비스자원의 개발방안이다. 또한 국가
 중요어업유산의 정의와 실행의도를 파악하고 대상사례지의 특성과 문화적 가치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론적 배경으로의 개념과 등록기준 및 효과에 대하여 분석하
 고 관광적인 가치를 고찰하여 어업유산과 문화관광과의 관계 및 체험적 가치와
 관광상품화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내용적 범주는 연구의 동기와 목적을 바탕으로 문제제기 및 연구목
 적을 구성하였고 문제해결과 연구목적에 의해 문헌 및 사례를 조사하였다. 보성
 빨배와 같이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등재된 다른 지역의 브랜드디자인 개발 및 프로
 그램운영 등을 비교분석하고 사례연구지에서 나타난 관광활성화 요인과 방안을
 모색하고 유산의 특성과 지역의 특성을 지닌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브랜드화의 예
 시를 제시한다.

2.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과 사례지의 고찰을 통해 해양수산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중요농어업유산제도의 전개 양상을 고찰하여 제도적 측면에서 지정기준과 지정 이후 지자체 및 정부의 운영체제와 유산의 보호와 지역의 브랜드화를 통한 관광활성화 방안으로 예시를 제시하고 어업문화유산의 가치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고자 하였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과 가치를 이론적으로 고찰하였으며 현재 지정된 1호부터 7호까지 유산의 특성과 가치도 함께 살펴본 후 보성빨배어업의 브랜드화 방향성과 예시를 제시하고 활용방안까지 제시하였다.



[그림 1-1] 연구의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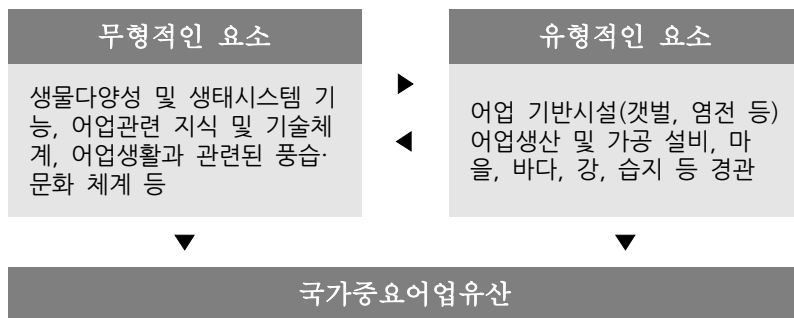
Ⅱ. 이론적 고찰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본질

1.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 및 기능

1)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

2013년 해양수산부가 독립되면서 2012년 농림수산식품부가 추진하던 국가농어업유산제도에서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은 서로 분리되었고 2014년에 어업유산은 해양수산부로 농업유산은 농림부로 이양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담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2015년 1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어업유산의 국가농어업유산과 세계농업유산 등재 등 예산지원이 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법이 인정한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과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절차에 착수하고 중요어업유산을 국가가 지정해 관리함으로써 어촌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를 국내는 물론 세계 최초로 출범시켰다.



[그림 2-1] 어업유산의 개념과 유·무형 요소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고 진화해 온 어업활동 중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과 문화 그리고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통칭하며 사라져 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 발굴 및 보전, 어촌 방문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추진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추진 배경이다.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한 지금의 시점에도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급변하는 사회에선 과거를 잊기가 쉬운데 우리의 어업유산 또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있다. 오랜 시간동안 형성되고 발전해 왔으며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 어업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의 경관 및 문화 등을 포함한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뜻하며 어촌을 찾는 방문객 증대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라져 가는 어촌의 고유한 어업유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산업화와 경제발전이 중요했던 과거에는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가 유산관리 행정의 주요 목적이었다면, 최근의 유산관리 행정과 유산정책은 보호 및 활용이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시기로 정의할 수 있다. 어업유산은 민족적, 예술적, 사회적, 교육적, 경제적, 환경적, 국제교류와 친선의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국민의 문화향유와 문화적 권익을 증대시키고 국제사회에서 선진 어업국가로서의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중요하고 적절하게 활용되어야 한다. 오늘날과 같이 정보화 문명의 급속한 발전과 미래사회로 진입하는 단계에서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호하여 후손들에게 전달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사회변화에 따라 보다 문화와 유산의 매력성이 유지되도록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유효활용이 강구될 수 있어야 한다.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기능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어촌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가치를 제고하며 지역공동체를 통한 유산의 브랜드가치를 창출하며 관광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먼저 자리를 잡은 농업유산과 마찬가지로 식량기반으로서의 어촌생태 기능을 유지하고 아름다운 경관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하여 지역

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또 희귀한 동물 및 식물은 미래에 막대한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으며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가치 제고와 더불어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지역사회 생산 및 생활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주민들에게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끝으로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문화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제공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 기여하게 된다.⁵⁾

[표 2-1] 어업유산의 기능(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http://www.mof.go.kr>)

기능	주요내용
어촌경관 유지	식량기반으로서의 어촌생태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의 관광자원 활용을 통하여 지역민의 관광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생물다양성 보존 및 가치제고	희귀한 동·식물종은 미래에 막대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및 가치 제고와 더불어 식품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지역 공동체의 유지	지역사회의 공통적 생산 및 생활기반이 되며 지역주민들에게는 공통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장을 제공하는 기능과 어촌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브랜드 가치의 제고	어업 유산이 국내·외적으로 대표성을 가질 경우, 그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게 되고, 이를 활용하여 지역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고용창출 및 관광자원화	어업유산을 활용한 어촌문화 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창출과 소득증가에 기여하게 된다.

5) 김준. 국가중요어업유산 자원발굴과 보전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과제 2017-25. 2017. P.12. 참고

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는 크게 식량생산, 독특하고 고유한 경관, 생물다양성 보전, 전통지식, 공동체문화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어업 및 어촌의 자원은 식량 공급만 아니라 아름다운 해양경관, 어업생태계 기능, 전통적인 어업활동과 해양문화 등 산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가치를 보유하고 있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이러한 자원을 계승하고 보전함으로써 어촌의 생태계 보존, 공동체 지속, 소득향상을 꾀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이다.

어업유산의 가치로는 첫째 식량 공급 기능으로서의 가치이다.

어업유산은 그 지역민의 식량 확보와 주민 생계 수단으로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해야 한다. 또한, 인류의 미래에 닥칠지도 모르는 식량 위기 및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둘째로 고유한 형상으로서의 가치이다.

해양자원 이용체계가 발전된 어장과 해변 및 갯벌 등의 해양자원과 다양한 어업과 관련된 독특하고 우수한 경관을 형성하게 됨에 따라 보전 및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로 생물다양성 보존으로서의 가치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훼손으로부터 기능을 보존하고 증진할 수 있는 차원에서 중요함에 따라 그 역할을 수행 가능한 어업유산에 대한 발굴 및 보전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로 어업 관련 전통 지식 및 기술 체계에 대한 가치이다.

해양과 해변과 같은 자연자원의 관리시스템, 그리고 어업자원의 생태관리를 위한 관리기술 등의 총체라고 할 수 있어서 보전 및 전승이 필요하다.

다섯째로 공동체의 전통 문화적 가치이다.

자원의 소유권에 대한 관습법, 친족, 결혼, 유증 관련 제도, 의사결정과 협력, 게임, 교육, 역할의 분배, 노동의 분배, 성별 역할 등에 관한 성문화 또는 구전으로 된 전통들과 관련된 것들이 존재한다.

4) 전통어업과 생태환경을 지키는 슬로피시(Slow Fish)운동

슬로피시는 지속가능한 어업과 그것을 가능케 하는 소비자들의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를 지향하는 개념이자 국제행사를 일컫는데, 국제행사는 2003년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처음 열린 후 홀수 해마다 열린다. 이 행사에는 어업 공동체와 수산 관계자들이 모여 점점 더 고갈되는 해양식량자원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바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국제적인 캠페인을 펼치며, 수산자원 관련 회의, 워크숍, 미각체험, 요리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⁶⁾

슬로피시는 민간과 공공기관의 거버넌스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 기획이나 콘텐츠개발은 슬로푸드 운동⁷⁾이 담당하고 있다. 이 재단은 23개 어업 공동체와 함께 23개 프레시디아⁸⁾(생산자 활동지원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좋고, 깨끗하고, 공정한 생선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 좋은 생선이란 우리의 감각을 만족시키는 신선하고, 맛있는 제철 생선으로 지역의 문화와 연관된 것을 말한다. 깨끗한 생선은 환경과 인간의 건강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것을 말한다.⁹⁾

여기서 말하는 공정한 생선은 소비자들의 접근이 가능한 가격이고, 소규모의 생산자와 작업자들에게 정당한 작업 및 생활을 영유해줄 수 있는 소득을 보장해주는 가격을 지급한 생선을 말한다. 현대의 식량자원의 공급과 관련하여 바다와 갯벌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만 연안 난개발 및 갯

6) <http://ecotopia.hani.co.kr>(생태어업 지키는 '슬로피시'를 아십니까)

7) 슬로 푸드(영어:slow food)는 패스트 푸드(fast food)에 대립하는 개념으로,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 문화나 식재료를 다시 검토하는 운동 또는 그 식품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슬로푸드 운동이 발생하기 전, 1980년대 중반에 로마의 명소로 알려진 에스파냐 광장에 맥도날드가 문을 열었다. 그러나 여기서 제공하는 패스트푸드가 이탈리아의 식생활 문화를 망친다는 위기를 낳자 슬로푸드 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1986년,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의 브라(Bra)의 마을에서 슬로푸드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때 고라라는 식생활 문화 잡지의 편집자였던 칼로 페트리니가 이탈리아 아르치(ARCI:여가, 문화 협회)라는 단체의 한 부문으로 아르치·고라라는 미국 음식의 모임을 만든 것이 시작이다. 아르치 자체는 120만 명 이상의 회원을 수반하는 풀뿌리 이탈리아 문화의 부흥 운동 조직이다. 토착 문화와 관계를 기반으로 하며 이는 슬로푸드의 이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슬로푸드 운동은 ‘안티 맥도날드운동’으로도 불린다. 비만이나 당뇨 등을 일으키는 패스트푸드에 반기를 들고 정성이 담긴 전통음식으로 건강한 먹거리를 되찾자는 취지다.

8) 프레시디아(Presidia, 단수형은 Presidium)는 1999년부터 슬로푸드가 시행한, 소규모생산자들과 함께 작업하면서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고립된 생산자들을 통합시키고, 그들의 사정에 더 민감하고 생산품의 진가를 더 알아주는 시장들과 연결시켜 주는 프로젝트이다.

9) <http://ecotopia.hani.co.kr>(생태어업 지키는 '슬로피시'를 아십니까)

별의 오염 그리고 생산과잉을 부르는 양식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도 슬로피시에 대한 정책이 시급하고 중요할 수 있다. 현재의 사회는 세계적으로 녹색혁명을 뛰어넘어 청색혁명(blue revolution)에 주목하고 있다. 청색혁명을 통한 수산물의 공급에 대한 기대가 크며, 큰 자원의 보고인 바다와 갯벌에 관심이 중요하다.

식량자급률과 곡물자급률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바다로부터 생산되는 식량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잡는 어업과 비교해서 기르는 어업이 다방면에서 효율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속적이지 않은 방식에 따른 바다와 갯벌 접근은 식량자급률을 높이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슬로푸드 운동이 제시하는 슬로피시운동은 중요한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준다. 지속가능한 어업과 소비자의 책임 있는 수산물 소비가 정책의 방향이다.

전통어업인 죽방렴과 그 어업으로 생산된 품질 좋은 멸치가 우리나라 슬로피시의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2001년 포르투갈 포르토에서 열린 슬로푸드 시상대회에서 경남 남해 창선에서 죽방멸치를 생산하는 류광춘씨가 심사위원 특별상을 받았다. 전통적인 어획방법을 지키면서 품질 좋은 멸치를 생산하고 있는 공적이 인정되었던 것이다.¹⁰⁾ 당시 슬로푸드의 리더들에게 죽방멸치와 그 멸치로 만든 멸치젓을 소개하였는데 죽방멸치를 맛본 사람들이 모두 고품질의 멸치와 그 맛에 크게 감탄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전통적으로 슬로피시를 보유하고 있음을 죽방렴과 죽방멸치가 보여주고 있다. 남해의 죽방렴이 대나무로 받을 쳐 놓고 밀물과 썰물에 의해 해염치다가 걸린 물고기를 잡는 어법이라면, 이와 같은 어법의 원리는 서해나 제주에도 존재하고 있다. 돌로 부챗살처럼 살을 만들었다는 뜻을 가진 서해 갯벌에 있는 독살이 그것이다. 또한 제주에는 산과 들에 돌담이 있는데 바다에도 돌담이 있다. ‘원담’이라 불리는 그것으로 원담이란 둑처럼 돌을 낮게 쌓아 놓고 밀물이 들어올 때 바닷물과 함께 들어온 물고기가 썰물 때 물을 타고 빠져나가다가 쌓인 돌담 사이로 바닷물은 빠져나가고 고기가 돌담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돌 그물인 것이다. 초기에 원담을 만들 때에는 마을 사람들

10) <http://ecotopia.hani.co.kr>(생태어업 지키는 '슬로피시'를 아십니까)

모두가 동원되어 함께 무거운 돌을 하나하나 옮기고 쌓았을 것이다. 경제적인 측면과 노동의 생산성을 감안하면 맞지 않는 행위임이 틀림없으나 다시 계산해 보면, 원담은 처음에는 투자비가 많았어도 한번 설치해 놓으면 비용이 추가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득일 수 있으며 자연에 순응하는 생태어업이며 경제성도 존재한다.

이들을 전통어업 또는 생태어업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삶을 위해 행해졌던 자연발생적 고기잡이며 자연에 순응적인 어업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현대의 먹거리 관점에서 살펴보면, 이런 방법의 전통어업에 의해 잡힌 물고기는 슬로피시에 해당하며 현대사회에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빠르게 대량으로 포획하는 수산물을 과거 전통방식으로 자연에 순응하고 소비자와 가까운 생산지에서 얻어낸 수산물인 것이다.¹¹⁾

지속가능성과 소비의 공정성이 위기인 시대에 슬로피시는 미래지향적 어업이고 미래의 식량자원의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생선도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깨끗하고, 공정한 생선이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으로 슬로피시를 지향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슬로피시 실천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식탁에도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는 현시대의 우리가 처한 먹을거리의 걱정이다. 식탁의 수산물이나 먹을거리가 비록 우리 삶의 전부는 아니어도 우리의 삶을 지속시켜 주고, 우리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의미에서 식문화는 매우 중요하다. 국제슬로푸드운동 선언문에는 있는 한 구절을 보면 “인류는 종이 소멸하는 위협에 처하기 전에 속도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속도와 효율성에 도취한 흐름에 전념되지 않기 위해서는 느리고 오래가는 기쁨과 즐거움을 적절하게 누려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방어는 슬로푸드 식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11) <http://ecotopia.hani.co.kr>(생태어업 지키는 '슬로피시'를 아십니까)

1.2. 국가중요어업유산 세계농업유산등재의 필요성

1) 유네스코(UNESCO)와 세계농업유산

유산이라 하면 인류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 오늘날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산으로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떠올린다. 과거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존재하며 미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독특한 자연 및 문화를 유산이라 한다.¹²⁾ 특히 세계 유산이라 하면 이러한 자연과 문화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 이러한 세계 유산은 유엔 교육과학문화 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즉 유네스코(UNESCO)가 지정한 유산을 말한다. 유네스코는 현저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효과적인 국제협력과 원조체계 확립을 위해 1972년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1975년에 발효했으며, 우리나라는 1988년에 가입했다. 이러한 유네스코 유산의 특징을 보면 과거부터 존재했던 인류의 자산 중 보존가치가 있는 유산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지·보전하는 것이다. 유네스코의 세계 유산과 더불어 또 하나의 세계 유산이 현재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 GIAHS)’이다.

2)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의 개념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2002년 남미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에서 가족농업과 전통농업시스템을 위협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농업유산시스템을 보전하고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글로벌파트너십이다. 여기서 말하는 농업이라 함은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 임업, 축산업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이다. GIAHS는 환경과 공동체의 공동 적응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세계적으로

12) <http://www.hdhy.co.kr>(현대해양 -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왜 필요한가)

중요한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진 현저한 토지 이용 시스템 및 경관이다. 일반적인 세계유산과 비교해 볼 때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은 과거에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며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유산이라는 점에서는 유네스코와 유사하다. 하지만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은 영토나 문화 또는 농업 경관 또는 생물 물리와 보다 넓은 사회적 환경과의 복잡한 관계에 있는 인간 공동체의 살아있고 진화하는 시스템이라는 면에서 차이점이 있다. 즉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은 단순히 과거부터 있어 온 유·무형의 자산이 아니라 현재도 식량획득이라는 경제활동이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것이 차별성을 갖는다.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 운영목적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몇 세기에 걸쳐 발달하고 형성된 농어업적 토지 이용 및 전통적 농어업과 관련돼 육성된 문화, 경관, 생물 다양성이 풍부한 농어업시스템을 중시하고, 이를 지역자원으로 규정하여 차세대에 계승한다는 것이다.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는 바로 세계식량농업기구의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문화 등 모든 유·무형의 자원을 통칭한다. 즉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인 어업과 이를 통해 발생된 유·무형의 자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게 된 목적은 사라져가는 어촌의 고유한 문화를 발굴해 어촌 방문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어업유산화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 농업유산의 의미는 협의의 농업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농업, 어업, 임업, 축산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의미로 사용된다. 중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농업유산은 어업유산을 포함하고 있다.¹³⁾ 2018년 4월 기준 세계농업유산은 총 49개가 등재돼 있으며 지정신청을 하고 심사 중인 유산 다수가 있다. 이중 우리나라는 농업유산만 4개가 등재돼 있고 1개는 심사 중이다. 현재

13) <http://www.hdhy.co.kr>(현대해양-국가중요어업유산)

심사 중이거나 등재된 세계중요농업유산은 보면 대부분 농업유산으로 한정돼 있고, 일부 농업과 어업을 통합한 유산이 있기는 하지만 어업만을 위한 유산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농업유산과 어업유산이 분리돼 있으나 FAO가 관리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에서는 어업유산이 농업유산이라는 단어 속에 포함돼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세계로 나아갈 때에는 세계중요농업 유산으로 등재해야 한다. GIAHS 지역이 어업유산의 내용을 얼마나 포함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GIAHS 사일 명칭에서 바다, 어업, 물고기 등의 용어가 포함된 유산의 사례는 많지 않다. 보유국가인 중국과 일본의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어업유산 단독으로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사례는 일본 기후(Gifu)현 나가라강(Nagara River) 은어시스템 (Ayu of the Nagara River System)이 대표적이다. 기후현의 4개 도시를 통과하는 긴 강인 나가라 강에 살고 있는 은어의 지속적인 서식환경 조성 및 가마우지를 이용한 전통적인 은어 잡이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독특한 유산이다. 이 외에는 중국의 경우 벼를 경작하면서 물고기를 같이 키우는 벼-물고기 농업, 벼-물고기-오리 농업 등이 있다. 일본 쿠니사키 반도의 경우, 참나무 숲이 있는 산지와 그 아래의 1,200여 개의 작은 연못을 활용하면서 농지 시스템과 연계시키는 농업과 임업과 어업이 종합화된 유산지역이 있다. 일본의 노토반도는 농경지, 산림 및 바다를 포함하는 개념인 마을 산 마을바다(里山里海)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표 2-2] 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사례와 유형(현대해양 : <http://www.hdhy.co.kr>)

국가	어업유산을 포함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	유산유형	지정년도
중국	Rice Fish Culture	농업, 어업	2005
중국	Dong's Rice Fish Duck System	농업, 어업, 축산	2011
중국	Dyke & Fish Pond System	어업, 저수지	2017
일본	Noto' Satoyama and Satoumi	마을산과 바다	2011
일본	Kunisaki Peninsula Usa Integrated Forestry, Agriculture and Fisheries System	산림, 농업, 어업	2013
일본	Ayu of the Nagara River System	어업	2015

제주 해녀어업이 세계농업유산에 등재된다면 세계 최초로 바다의 단독 어업유산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되는 쾌거를 이룰 것이다. 나아가 현재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독특하고 유산으로서 널리 알릴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요어업유산을 더 많이 발굴하고 유산으로 보존 발전시키기 위해 세계농업유산 등재를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재된 우리 어업유산의 특성을 보면 모두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안에 치중돼 있다. 물론 남해안 어업이 역사도 오래되고 다양하며 우리나라 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긴 하지만, 서해안이나 동해안에 전통적인 어업인 전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해안과 남해안의 신청율도 낮고 지정이 안 된 이유는 세계농업유산 및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본질은 단순한 유산의 지정이 아니다. 점차 사라져가는 전통어업유산을 발굴해 중요유산으로 지정함과 아울러 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업계, 지자체 및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및 조

직은 말할 것도 없고, 현행 수산관련법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독살어업과 같은 전통어업의 합법화도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유네스코 자연유산 및 문화유산에 버금갈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어업유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전략도 있어야 한다. 우리만 알고 있는 유산이 아니라 일반 국민들과 세계인들이 인식하고 그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유산이 되도록 다양한 홍보 및 활용전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의 필요성보다 더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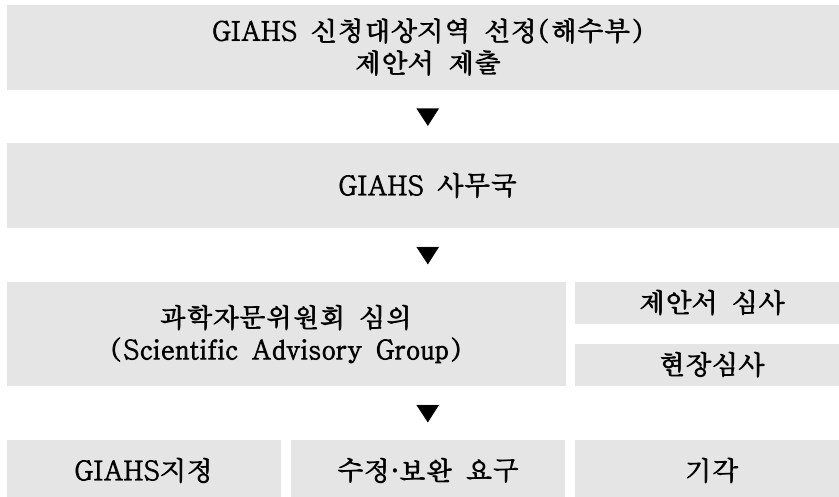
어업유산을 GIAHS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등재절차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첫째, 해수부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GIAHS로 신청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업유산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돼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수부는 국가중요어업유산 중에서 GIAHS로 등재 가능성이 높은 유산을 합리적으로 선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국가중요어업유산 선정기준과는 다른 별도의 GIAHS 신청을 위한 선정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GIAHS 등재를 위한 제안서를 작성하고 해수부를 통해서 GIAHS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안서의 작성은 FAO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출양식과 관련 내용서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셋째, GIAHS사무국은 국가별 제안서를 GIAHS 과학자문기구인 SAG(Scientific Advisory Group)로 넘긴다. SAG는 대륙별, 전문분야별로 위촉된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GIAHS 심의와 지정과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SAG 심사는 제안서 심사와 현장심사(Field Survey)로 나뉜다. 제안서 심사 후 현장 심사 여부를 판단하며 일반적으로 제안서 심사 과정에서 수정 또는 보완이 이뤄진다. 하동군 전통 차밭의 경우에도 제안서 심사 후 수정 및 추가내용 보완에 대한 요구를 받았다. 현장 심사 후에도 수정 요구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장심사에는 SAG 위원 1명이 직접 참여하고 있다.

넷째, 제안서 및 현장심사가 끝나게 되면 GIAHS로 등재(Designation), 또는 다

시 수정 또는 보완(More Information)을 요구한다. 제안서 내용이 미흡하거나 현장 심사에서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기각(Declination)될 수 있다.



[그림 2-2]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준비와 심의 절차(출처 : 세계요농업유산 홈페이지 - www.giahs.org)

어업유산을 GIAHS로 등재시키기 위해서는 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나아가서는 제안서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제안서는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의 선정기준인 5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GIAHS로 신청하는 농업유산은 식량 및 생계유지(Food & Livelihood Security), 농업생물다양성(Agro-biodiversity), 지방전통지식체계(Local & Traditional Knowledge System), 문화·가치체계 및 사회조직(Culture, Value Systems & Social Organizations), 경관(Landscapes Features)이라는 가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유산의 수준이 세계적이어야 한다. 유산은 세계적(Global), 국가적(National), 지방적(Local)인 수준으로 나뉘질 수 있다. 세계적이란 이미 지정된 GIAHS와 동등한 수준이어야 하며 나름대로의 차별성과 정체성을 보여줘야 한다. GIAHS로 지정해 보전하고 전승할만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제안서는 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실용적인 시행계획(Dynamic Action Plan)을 담아야 한다. 유산의 고유성, 차별성 및 정체성이 유지되고 보완될 수 있는 현실적인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 유산의 복원 및 가치 확장을 통해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유산지역 범위설정과 제안서 작성은 시스템적인 접근(System Approach)에 기초해야 한다. 예를 들면, 농촌마을은 마을 산, 취락, 주변 농경지, 물길 등으로 구성돼 있다. 마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개별 공간요소를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공간요소를 전체적으로 통합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농업유산에 대한 접근은 유산지역만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공간요소를 찾아내어 상호관계를 밝히고 통합적으로 서술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시스템(GIAHS)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요구하는 기준, 절차 및 내용을 이해하고 준수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GIAHS 등재와 관련된 최신의 정보와 흐름을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실제로 GIAHS 등재를 누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유산을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유산발굴과 제안서 작성과정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가 필수적이다. 유산의 지정과 관리는 유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이해관계와 얽혀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 관련 공무원의 관심과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농업유산지역에 대한 보전계획수립, 사업시행, 모니터링과 평가 등의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다양한 분야의 조직을 효과적으로 작동시키고 협력하게 할 수 있는 추진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유산 관련 부처 간의 협의도 필수적이다. 농식품부와 해수부가 매년 협의를 통해 어떤 유산을 GIAHS로 신청할 것인지 또는 농림어업복합형 유산으로 제출할 것인지 등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유산발굴과 선정을 위한 통합위원회 구성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추진체계의 구축과 부처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시키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도해 볼 때가 됐다.

1.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등록 기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8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다루는 ‘어업’이란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30조의3)¹⁴⁾ 어업유산 역시 별도로 정의하지는 않았으나, 여기서 말하는 유형적인 것이란 어업활동과 관련하여 형성된 어업기반시설·가공시설·생활시설 및 이를 포함하는 경관·생물다양성¹⁵⁾을 의미하고 무형적인 것이란 어업활동과 관련된 어업기술·전통지식·어업문화·사회조직을 의미한다.¹⁵⁾ 국가어업유산은 오랜 시간의 발전과정을 통하여 그 지역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형성하면서 발전의 과정 속에서 지역의 소산으로서 가치 있는 농어업유산을 축적하여 왔다. 이러한 유산은 인간의 문화적 행위결과에 의하여 획득되고 전승되어 온 유·무형의 자료를 총칭하며 특정 지역의 삶에 대한 지혜가 함축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절차와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어업유산이란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을 말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이란 어업유산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어업유산을 말한다.¹⁶⁾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지자체의 신청서를 해양수

14) 제30조의3(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활용)

1.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무형의 어업자원 중에서 보전할 가치가 있는 어업자원을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국가중요어업유산에 관하여는 제30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가중요농어업유산”은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은 “해양수산부령”으로 본다.

15) 주남희,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P.78, 요약

16)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정 여부가 결정되며, 어업유산지정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어업자원에 대한 설명 및 주민협의체 지정동의서를 구비하여 신청 후 심의를 통해 해양수산부에 의해 지정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형성 및 진화해 온, 보전 및 유지와 전승할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어업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어촌 경관 등 모든 유·무형 자원으로, 생계유지를 위한 어업활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이어야 한다.

1)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기준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통적 어업활동과 그 결과로 나타난 해양경관 및 해양문화 등 모든 어업활동의 산물을 말하며 어업유산은 어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자연적 생태적 환경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형성되고 진화한 것들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통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전통어업이나 전통지식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통어업과 그 지식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포괄하는 것이다. 천일염전을 예로 들어 증발지에 물을 가두고 증발시켜 천일염을 만드는 무형의 기술과 저수지와 증발지 및 결정지 소금창고 등 염전과 갯벌 등 유형의 경관요소까지 포함한 복합체로 구성된다.

[표 2-3]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기준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http://www.mof.go.kr>)

구 분	항 목	세부 기준
어업유산의 특징	수산물	○ 수산물 및 주민 생계수단으로서의 역할 정도 ○ 수산자원으로서 어산물의 활용 정도
	생물다양성	○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보존·증진
	지식체계	○ 어업유산의 지식체계 및 기술 보유 ○ 어업유산의 보호·보전을 위한 관리기술 보유
	전통문화	○ 어업유산 관련 문화·의식 형성 ○ 세대를 잇는 어업유산 활용기술의 전수
	경관형성	○ 아름답거나 현저한 경관 형성 ○ 주변 어촌마을 및 자연환경과 어업유산의 조화
역사성		○ 60년 이상 경과하거나 이에 준하는 역사성 보유 ○ 미래에 존속 가능하고 존속할 만한 가치 보유
지역성	지방자치단체 정책	○ 지방자치단체의 보전·관리 계획 수립 등 정책적 지원 ○ 어업유산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여부 등
	인식도	○ 지역주민 지닌 어업유산에 대한 인지도, 자부심 및 자긍심 등
	지속가능	○ 향후 어업활동으로서의 활용가능성 ○ 어업 외 지역활성화 요소로 활용가능성
	가치제고	○ 어업유산에 대한 사후관리 및 보존관리 계획 수립 및 계획의 타당성여부

단체장은 지정된 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관리계획에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조사·복원 및 환경 정비 등을 통한 유산자원 관리 사항, 어업기술 및 어업문화의 지속적 계승과 생물다양성 증진 사항,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지역 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등 국가중요어업유산을 활용한 지역활성화 사항,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역 주민 또는 주민협의회체와의 협력 사항'을 포함한다.¹⁷⁾ 이러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상기한 고유의 특징이 60년 이상이거나 이에 대체되는 역사성을 갖추고 지역 내에서 지방

17) 주남희. 전계서. 2016. P.80. 요약정리

자치단체 및 지역주민의 삶이 함께하는 지역성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표 2-4]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평가등급 (출처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http://www.mof.go.kr>)

평가등급	평가요소
탁월	각 항목별 심사기준에 부합하며, 유산으로의 가치가 뛰어나 유산 지정을 통해 후대에 전승·계승이 필요한 경우
우수	유산으로서 지정이 필요하나 자료 미흡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통	타 지역과의 차별성이 없으며, 항목별 기준에 미흡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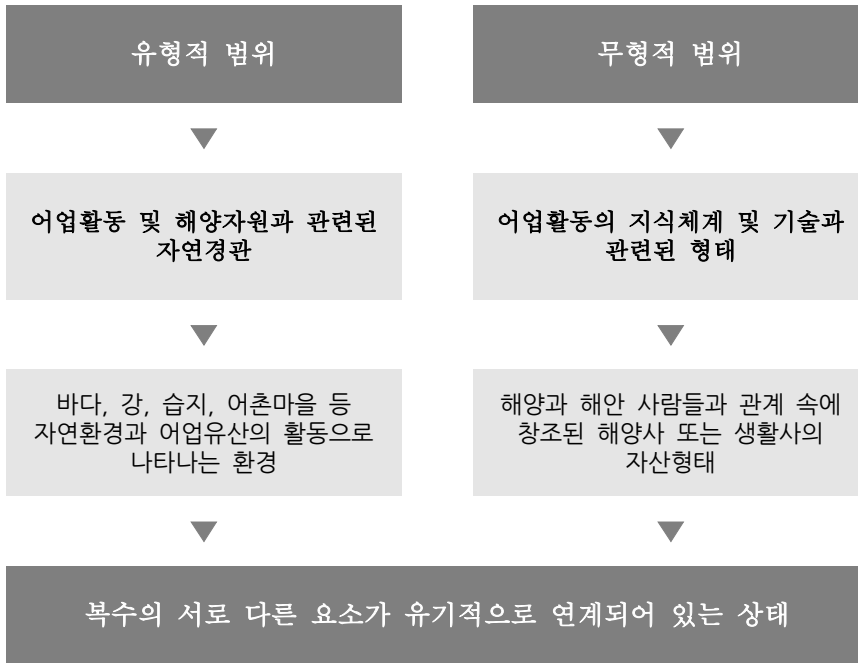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가부결정은 ‘탁월’이 어업유산 특징 항목에 4개, 전체 평균 7개 이상일 경우 “가” 그 외인 경우 “부”이며, 심사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가”일 경우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다.

2) 신청절차

국가중요어업유산 신청을 원하는 주민협의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양수산부에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한다. 이 신청서는 평가자문위원회에서 3단계의 평가와 자문을 통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1.4.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범위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범위는 전통적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공동체의 유대관계가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지역공동체 대상지역으로 설정되어 있다. 바다는 물론 강과 하천 그리고 저수지 등 물고기와 패류 등 수산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은 모두 해당한다.



[그림 2-3]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범위와 대상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제주해녀의 경우 사례로 본다면, 해양문화에 속하는 내용으로는 해녀의 어로활동으로 이어지는 불턱과 잠녀의례 등 특별한 전통지식 체계의 대상과 내용이 될 것이다. 해양경관은 어로활동의 풍경과 마을어장의 경관, 어촌과 인근어장 등이 해당된다. 그리고 어업생산 활동으로 생산된 전통지식 등이 해당된다. 어업유산이 특정 어법이나 관련 장소를 지정하지만, 무엇보다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행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전승자의 유무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이러한 어업활동을 가능한 생태시스템이 구축되어야하며 그 어장을 관리할 지역어촌계와 마을공동체도 여기에 포함된다. 어업유산은 제주해녀라고 지정되지만 실제로는 제주해녀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생태문화와 전통지식 및 자연 환경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1.5.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현황

1) 제1호 제주 해녀어업 (2015년 12월 지정)

대상 지역은 제주도 전역(14,346ha)으로 특정장치 없이 맨몸으로 잠수해 전복, 소라, 미역 등 해산물을 직업적으로 채취하는 전통적 어업방식으로 불턱, 해신당 등 세계적으로 희귀하고 독특한 문화적 가치가 존재한다.



[그림 2-4] 제주 해녀어업(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제주에서는 해녀를 ‘줍녀’라고 하며 제주 여성의 강인함의 상징이 되고 있다. 최근 해녀물질공연단을 만들어 그 존재를 새롭게 알리고 있다. 2016년 기준 활동하는 해녀의 수는 4,300명 정도다. 지역별로는 제주시에 2,400여 명, 서귀포에 1,890여 명이 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가장 많으며 60대, 50대가 그 다음이다. 80세 이상임에도 해녀로 활동하는 사람은 480여 명이다. 2016년 12월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되었고, 2017년 5월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

정되었다. 해녀문화는 협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공동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다른 국가무형문화재들처럼 특정 보유자나 단체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¹⁸⁾

2) 제2호 보성 빨배어업 (2015년 12월 지정)

대상 지역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장암리 일대(35km²)로 뱃으면 매우 깊게 빠지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 특성 때문에 빨배는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이다.



[그림 2-5] 보성 빨배어업(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빨배는 걸어서 들어갈 수 없는 갯벌에서 어로활동의 이동수단이자 운반도구 역할을 하며 이러한 어업을 빨배어업이라고 한다. 빨배는 어민들이 직접 만들기도 하고 마을에서 공동으로 만들기도 하는데 빨배어업을 할 수 있는 곳은 순천만이 나 벌교갯벌처럼 미세한 진흙갯벌이다. 이런 갯벌로는 여자만 외에도 보성과 장흥 득량만, 강진 가로림만, 태안과 서산의 가로림만 등이 대표적이다. 이중 여자

18)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http://www.jeju.go.kr>) 통계자료.

만 일부, 가로림만 등은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다. 보성 빨배어업은 청정해역 여자만의 드넓은 갯벌에서 꼬막 채취를 위한 유일한 어업활동 이동 수단으로, 지역성, 역사성을 갖춘 전통적인 방식이다. 전국 꼬막 생산량의 70%를 점유하고 있으며, 보성군에서는 레저빨배대회, 별교꼬막축제, 빨배체험기반조성사업, 어촌갯벌체험시설, 꼬막종묘배양장시설, 꼬막웰빙센터건립 등으로 전통 꼬막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¹⁹⁾

3) 제3호 남해 죽방렴어업(2015년 12월 지정)

대상 지역은 경남 남해군 삼동~창선면 지족해협 일원(537.2ha, 죽방렴 23개소)으로 삼국시대 이래 현재까지 어업인 생계수단으로서 자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반도 유일의 함정어구를 사용한 어로방식으로,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시스템이다.

죽방렴은 기록으로 남아 있는 어업유산 중 현재 어민들이 생계활동으로 유지하는 가장 오래된 어업이다. 지족해협 일대에 죽방렴은 23개소가 있으며 그 일대 537.2ha가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죽방렴은 주로 멸치를 잡는다. 좁은 물목으로 빠르게 흐르는 바닷물을 이용해 좌우에 물고기를 유인하는 날개를 그물로 삼아 가운데 임통을 만들어 가두어 잡는다. 죽방렴을 유지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시설물 관리이다. 멸치도 예전처럼 들지 않지만 태풍으로 파손되면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옛날에는 나무를 기둥으로 삼았지만 최근에는 건축공사에 사용하는 H빔을 박아 그나마 뼈대를 유지하고 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대표적인 전통적 어업방식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2010년 문화재청으로부터 명승 제71호로 지정받은 이후 2015년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서 또 다시 보존가치를 입증 받게 됐다.

19) media.daum.net(보성빨배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그림 2-6] 죽방렴어업(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4) 제4호 신안 천일염업(2016년 10월 지정)

대상 지역은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일대(29.7km²)로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전통 기술과 노하우를 이용해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전통어업활동 시스템이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은 바닷물을 염전으로 끌어들여 전통기술과 장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바람과 햇볕으로 물을 증발시켜 소금알갱이를 얻는 전통어업활동이다. 전남 신안군 천일염전 29.7km²가 대상 지역이다. 우리나라 염전의 80%가 전라남도에 있으며, 그중 80%가 신안지역에 있다. 오랫동안 광물로 분류되어 식품가공에 사용할 수 없었지만 2007년 식품으로 인정되었다. 최근 소금값이 크게 하락하면서 천일염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 어업유산 중 배타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유산이다. 신안 갯벌 천일염업의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천일염의 생산성, 지식체계, 경관 형성, 지속가능성 등의 보전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앞으로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



[그림 2-7] 신안 천일염업(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5) 제5호 완도 지주식 김 양식어업(2017년 12월 지정)

지주식 김 양식어업은 얇은 수심과 조수간만의 차를 이용해 광합성을 늘릴 수 있도록 일정 시간을 노출 관리하는 방식이다. 완도군 고금면 청학리, 가교리, 봉명리 3개 마을 24어가가 전통 지주식 김 양식에 종사하고 있다. 완도 지주식 김 양식은 193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전성기를 누렸으며 특히 1930년대에는 완도가 전국 김 양식 어가의 34.9%를 차지했다.²⁰⁾ 대상 지역은 전남 완도군 고금면 청용리, 가교리, 봉명리 일대의 지주식 김 양식장(358ha)이며 얇은 수심과 큰 조수간만의 차 등 양식 어장의 특성을 이용해 김을 자연 햇볕에 일정시간 건조시키면서 생산하는 친환경적·전통적 김 양식어업이다.

지주식 김 양식어업이란 갯벌에 지주목을 세우고 밭을 설치하여 김을 기르는

20) 완도군청 홈페이지(<https://www.wando.go.k>)

방식이며 썰물 때 물이 빠지는 갯벌의 특성상 다른 방식으로 양식하는 김에 비해 일조량을 확보하기가 용이하다. 김 양식의 적지는 서해안과 남해안이다. 파도가 적은 내만, 조류소통이 잘되는 곳, 담수 영향이 적당한 곳이다. 강 하구에 김 양식장이 발달한 이유다. 특히 지주식 김 양식은 상대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양식하는 부류식과 달리 조간대에서 이루어진다. 연안습지에서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마을공동어업이다.



[그림 2-8] 지주식 김양식어업(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김 양식은 섬진강 하구에서 싸리나무나 대나무 가지를 다발로 묶어서 갯벌에 꽂아 양식하는 것으로 ‘썰 양식’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양식은 낙동강 하구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이후 죽홍식이라 해서 대나무를 쪼개서 새끼줄에 엮어 김 양식을 하는 ‘죽홍’ 즉 대나무를 엮은 양식법이다. 이후 대나무 발 대신 자망이나 정치망 그물로 대체되었다. 이 방법이 발달해 ‘지주식 망홍’으로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깊은 바다에 부표를 띄우고 김 발을 매달아 양식하는 ‘부류식 망홍’까지 발전했

다. 지금은 수심이 깊은 바다에 닻을 놓고 대형 틀을 만들어 그곳에 김발을 매다는 개량된 부류식 망홍으로 발달했다.

6) 제6호 무안·신안 갯벌낙지 맨손어업(2018년 11월 지정)

대상 지역은 무안 탄도 및 신안 선도 일대 갯벌(118.35km²)로 낙지가 서식하는 갯벌의 구멍과 위치 등 낙지의 생태를 파악하여 재빠르게 맨손으로 포획하는, 토착지식이 내포된 전통 낙지잡이 어업법이다.



[그림 2-9] 갯벌낙지 맨손어업(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우리나라에서 갯벌이 가장 발달해 있으며 건강하다. 특히 이 지역 어촌은 봄부터 가을까지 낙지잡이에 의존해 살아가는 어민들이 많다. 특히 이 지역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전통적인 맨손어업의 비중이 높고, 전통지식이 전승되고 있다. 무안·신안의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남성은 '가래 삽'을 사용하고 여성은 맨손으로 갯벌에 서식하는 낙지를 채취하는 전통어법이다.²¹⁾ 무안·신안군의 갯벌은 영양분이 풍

부한 펄 갯벌지역으로, 타 지역에 서식하는 낙지에 비해 유연하고 부드러운 우수한 육질을 가진 낙지를 채취할 수 있다.

7) 제7호 하동·광양 재첩잡이 손틀어업(2018년 11월 지정)

대상 지역은 하동군, 광양시 섬진강 하류 일원(140ha)으로 서식환경이 잘 보존된 기수역에서 재첩을 채취하는 어법으로, 거랭이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강바닥을 긁는 과정에서 수중 생태계 순환에 기여하게 된다.



[그림 2-10] 재첩잡이 손틀어업(출처:<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섬진강 재첩의 수확은 거랭이라 하는 손틀어구를 이용하여 재첩을 잡는 전통어업방식이다. 거랭이는 3m 정도 대나무에 철망으로 만든 소쿠리형 갈퀴 ‘거랭이’를 부착해 만든 어구다. 강바닥에 있는 모래를 거랭이로 끌고 가면 모래는 빠져나가고 재첩만 남는다. 잡은 재첩은 깨끗하게 씻어 불순물을 걸러내면 바로 상품

21) <http://www.mof.go.kr>(해양수산부 - 국가중요어업유산 2건 추가 지정)

으로 판매할 수 있다. 섬진강은 국내 재첩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재첩의 주 생산지이며, 경남 하동군과 전남 광양시는 전통 어업유산 보전·관리를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2.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 효과 및 활용

2.1.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의 가치

1) 어업유산의 가치의 인증을 통한 관광활성화

어업유산의 가치를 국가에서 공인받음에 따라 어업유산보유 지자체의 수준 높은 지역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어업유산에 대한 일반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증진시키는 재인식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또한 어업유산의 브랜드화를 통한 지역적 특색을 지닌 차별화된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어업유산지정은 수많은 방문자로부터 역사·문화적 원형과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관광객의 관광 욕구를 충족시키며 미래세대의 관광환경을 확보하는 의미도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가치는 개인과 사회의 중심에 있는 존재하는 개념으로서, 사회학적으로는 인간 상호 간의 관계이며, 심리학적으로는 어떤 요구에 대한 인간 자신의 의지의 표현을 의미한다. 특히 가치는 도덕과 자격의 조건을 창조하고 평가하며, 사회적 상호행동을 안내하고 신념과 태도와 행동을 합리화시켜 준다.²²⁾ 따라서 어업유산지정의 가치화가 관광자원에 접목이 되면 자연미와 인문자원을 대표하는 예술미 및 정신적 가치인 문화의 미와 관광미를 포함해야 한다.

2) 어업유산의 보전과 관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등록된 후 해당 지역은 어업유산의 최적, 최상의 상태 보전을 위하여 관리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며, 전문가의 연구와 보존·혁신 기술개발에 관한 지역 전문가 양성과 유산의 보존 및 복원을 위한 장비 지원 등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2) 전명숙. 경주지역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P.21. 요약정리

어업유산은 역사와 문화적인 가치를 후대에 전할 수 있는 연구대상의 자료임과 동시에 예술성과 학술성을 보유함으로써 관광가치를 내포하고 있다. 어업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한 관광상품화는 지역적 관점에서 볼 때 관광객에게 어업유산 보유의 고유한 지역성과 전통성, 역사성을 바탕으로 하여 지역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 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존, 활성화를 이룩할 수 있으며 어업유산 소재 지역의 역사성과 향토성의 특화로 관광상품화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지역관광 개발을 통한 지역문화의 홍보와 경제이익, 고용증대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환경적 측면에서의 어업유산 관광상품화의 가치는 주변 환경과 지역사회 전반의 환경적인 정비를 들 수 있다.²³⁾

3) 직·간접적 전국적 홍보로 인한 지역홍보효과 상승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정과 인증은 전국적 이슈화와 언론 및 타 지자체에서 갖는 관심과 취재를 통하여 어업유산을 전국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홍보 기회가 되며, 어업유산 홍보와 관리를 통한 지역관광발전이 상승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특히 국가어업유산은 위치한 지역의 주변 환경과 특색 있는 조화를 이루는 경관미가 존재하고 주변의 환경, 기후, 해변과 바다 등 주변 환경에 어울리는 주변 환경의 진정성은 모두 하나의 전체로서 간주되어야 하며 균형과 특성은 전체를 구성하는 다양한 인간의 환경을 포함하는 부분들의 융합에 인간 활동을 포함한 모든 유효한 요소들은 어업유산과 함께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2.2. 어업유산의 관리와 진정성 보존

어업 체계적 보전과 관리 및 활용(브랜드화, 관광자원화)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촌의 지속가능한 중요어업유산을 지정했다. 국가중

23) 전명숙. 전계서. P.29.

요어업유산은 2015년 12월에 3개소, 2016년 1개소, 2017년 1개소, 2018년 2개소 등 총 7개소가 지정되었다.



[그림 2-11] 국가중요어업유산 및 어업유산 후보자원 현황(출처 : 해양수산부, 2019)

해양수산부는 농업유산에 비해 늦게 시작된 어업유산 발굴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어업유산 자원 리스트 20개를 발굴했다. 이 중에는 기존의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확대, 동일 품목이지만 시스템이 상이한 경우, 신규품목 등을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이 해양경관, 해양문화, 어업활동 시스템에 대한 가치를 복합적으로 갖추고 있다. 후보자원을 보면 염전, 죽방렴, 김 양식, 멸치잡이 등 확대지정이 필요한 것과 독살어업, 백합채취, 뱀장어잡이, 송어잡이, 개불잡이 등 신규로

지정된 것이 있다. 지역으로 보면, 어업자원이 활발하고 마을어업이 발달한 전라남도 지역에 집중 분포해 있다.

국가중요농업유산 12곳 중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곳은 청산도 구들장논시스템, 제주 발달농업시스템, 금산 인삼농업시스템, 하동 전통차 농업시스템 등이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또한 세계농업유산지정을 근거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3. 체험관광의 활용가치

1) 체험관광으로서 활용현황

어업유산과 문화유산의 차별은 ‘살아 있는 유산’이라는 점이다. 즉 생업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박물관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이런 문화유산을 총칭해 ‘에코뮤지엄’이라고도 한다. 물질을 체험할 수 있는 제주에 법환마을, 뽕배타기를 할 수 있는 벌교하장마을, 죽방렴으로 멸치 등 물고기를 잡는 지족마을, 염전체험을 할 수 있는 신안 추포리 등을 국가중요어업유산 체험마을로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어업유산을 매개로 체험이 이루어진 사례를 찾기 어렵다. 다만 제주해녀와 죽방렴은 어촌 체험마을이나 다른 형태로 체험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제주해녀체험을 대표하는 것은 ‘한수풀해녀학교’이며, 하도어촌체험마을도 ‘해녀체험’이 있다. 하도어촌체험마을은 하도어촌계가 주관해서 해녀체험 외에 스노클링, 바닷잡이, 대나무낚시, 원담체험을 겸한다. 한수풀해녀학교는 ‘해녀문화와 해녀의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2007년 문을 열었다. 2019년의 경우 이주여성과 외국인 여성을 포함한 도내·외 여성 약 45명, 도내·외 남자 약 5명을 선발하는 공고를 냈다. 서귀포시 법환리에는 2008년 11억의 예산을 들여 해녀체험장이 조성되었지만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2015년 법환마을회, 어촌계, 제주씨그랜트사업단, 수협(성산포, 서귀포, 모슬포), 서귀포 시청 등이 함께 ‘법환좀녀마을 해녀학교’로 오픈했다. 이곳에서는 잠수기술, 해녀유적 답사, 물질실습 등으로 구성된 80시간 직업해녀양성과

정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국가중요어업유산과 직접 관련 없이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와 어촌체험은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만 가치와 내용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보성빨배어업과 관련한 프로그램은 순천시 별량면 거차마을에서 어촌체험프로그램을 맞볼 수 있다. 이 마을은 5월에서 9월까지 사전예약자에 한해서 정해진 구역에서 빨배체험을 하고 있다. 다만 보성지역은 벌교읍 장양리에서는 7월 어촌체험마을에서 보성군의 후원을 받아 갯벌레저 빨배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2010년 빨배를 레포츠 장비로 개발해 매년 ‘레저 빨배대회’를 열고 있다.

남해 죽방렴어업은 남해군 지족마을과 사천시에 분포한 멸치 잡는 어법이다. 문화재청 명승(제71호), 죽방멸치(지리적 표시제)등록 그리고 최근에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족어촌체험마을에서 최근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안전과 체험시설을 갖춘 죽방렴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매년 4월부터 11월까지 물때에 맞춰 통 안에 든 물고기를 잡는 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역시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관련된 내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안 갯벌천일염업 체험은 신안군 소재의 태평염전을 비롯해 고창의 삼양염전, 시흥의 소래염전, 안산 대부도 동주염전 정도다. 이들 염전 중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은 태평염전이 유일하다.

정부는 2019년 2월 소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5년마다 세우는 ‘제2차 소금산업진흥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천일염을 소금박물관, 소금동굴 힐링센터, 염생식물관, 갯벌 염전체험 등과 결합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염전 수는 1100여 개로 염전면적은 4,777이며 생산량은 30만 톤에 이른다. 이 염전 중 80% 이상은 전라남도에 있으며, 60% 정도는 신안군에 소재해 있다. 갯벌천일염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역이다. 이곳에 체험을 할 수 있는 곳은 태평염전 한 곳뿐이다. 나머지 김 양식어업, 갯벌낙지 맨손어업, 재첩잡이 손틀어업 등은 체험 관련 프로그램 자체가 없다.

2) 체험관광 운영주체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지원을 받게 되며, 세계농업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유산의 보전관리와 농촌의 다원적 가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농촌 다원적 자원 활용사업’으로 유산자원의 발굴,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3년간 약 15억 원(국비 10억)을 지원하고 있다. 해녀의 경우,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결정 후 2017년 4월 ‘제주해녀협회’가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당시 여성어촌계장 13명이 부회장과 감사 등 임원으로 뽑혔으며, 현직 해녀 4,005명과 전직 해녀 5,495명 등 총 9,500명이 가입했다. 해녀협회를 통해 해녀 관련 행사비용이 지원되기도 한다. 제주도는 마을마다 어촌계에 속하는 ‘해녀회’가 조직되어 있다. 이들 해녀회장이나 해녀가 어촌계장을 맡기도 한다. 최근 도내 100여 개의 어촌계 중 약 20%의 해녀가 어촌계장을 맡을 만큼 마을 내에서 해녀의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해녀어업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해 은퇴 해녀에게 월 30만원씩 3년간 은퇴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의료비나 해녀작업 관련 의복 등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성빨배어업의 경우 별도조직은 없으며, 마을별 어촌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빨배어업의 지속을 위한 지원은 없으며 전승주체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없다. 죽방멸치어업의 경우에는 관련 영어조합이 만들어져 있다. 죽방멸치어업이 하나의 사업체이기에 사업을 계승할 후계인력이 없으면 허가권을 판매하기도 한다. 신안갯벌천일염업은 대한염업조합이 조직되어 있지만 후계인력 양성이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다. 염전의 운영이 개인소유이며 사업체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최근 소금값이 크게 하락하고 염전중단을 선언하는 생산자가 많아서 전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완도 지주식김양식어업도 특별한 조직이 없으며 마을어촌계에 속하며, 개별사업체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김 수출의 호황으로 양식이 늘었고, 전복이나 다른 양식에서 김 양식으로 전환하기도 한다. 하지만 여전히 후계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양식면적 이 넓은 어

가의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도 한다. 갯벌낙지 맨손어업은 채취 기술은 갯벌을 걸어 다니면서 갯벌을 파내고 낙지를 잡는 힘든 어법이며, 경험에 의존했기 때문에 전승이 매우 어렵다. 재첩잡이 손틀어업은 섬진강에서 이루어지는 어업으로 어촌계가 있지만 개별어업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승과 관련된 교육이나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은 없다.

[표 2-5] 국가중요어업유산 활용 현황(출처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시기)	대상지	프로그램	조직	지원근거	전승주체 양성기관
제주 해녀어업 (2015.12)	제주특별시 자치도	해녀학교 1곳 해녀박물관 1곳 해체체험, 3곳	마을해녀회 제주해녀협 회	조례제정 지원	개별 사업
보성 뽕배어업 (2015.12)	전남 보성 별교	어촌체험마을 - 뽕배대회(2018, 5회) 어촌체험마을뽕 배체험 1곳	어촌계		개별 사업
남해 죽방렴어업 (2015.12)	경남 남해	어촌체험 - 죽방렴 고기잡기 체험	죽방멸치 영어조합		개별 사업
신안 갯벌천일염업 (2016.10)	전남 신안	태평염전 - 염전체험, 소금박물관 신안군 운영 박물관이나 어촌체험 없음	염업조합 작목반	소금산업 진흥법	개별 사업
완도 지주식 김 양식 어업 (2017.12)	전남 완도	프로그램 없음	어촌계		개별 사업
갯벌낙지 맨손어업 (2018.11)	전남 무안 전남 신안	프로그램 없음	어촌계		개별 사업
재첩잡이 손틀어업 (2018.11)	경남 하동 전남 광양	프로그램 없음	어촌계		개별 사업

2.4.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활용방안

1) 지속가능한 어업유산 시스템구축

어업유산은 지역의 독특한 지역특성 및 바다의 이용과 어업문화, 어업어촌경관, 염생식물과 해양동식물의 다양성 등 어업시스템을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어업과 어촌 활성화를 꾀하고자 국가중요어업유산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위해 공간과 주체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통적 어업 활동 시스템과 그 결과로 나타난 해양경관, 해양문화, 어업활동 등 모든 산물’을 말한다. 이러한 산물들은 어민들이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아 자연·생태적 환경에 적용해오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진화해 온 것들이다. 따라서 국가 중요어업유산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전통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전통어업이나 전통지식이 지속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수산업이나 어업 중에서 이러한 조건을 갖춘 전형적인 곳은 ‘마을어업’ 구역이며, 마을공동어장이라고도 한다. 어촌마을 주민들이 참여하고, 혹은 어촌계원만 맨손 어업이나 양식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를 기반으로 어촌공동체라는 커뮤니티가 형성된다. 이미 지정된 국가중요어업유산 중 천 일염전을 제외하면 모두 마을어업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생업활동이다. 따라서 마을어업의 특성과 그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절실하다. 또 어업유산의 지정범위는 전통적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핵심적 지역과 이로 인하여 형성된 공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바다는 물론 강과 하천 그리고 저수지 등 물고기와 패류 등 수산동식물이 서식하는 곳은 모두 해당한다. 어업유산이 특정 어법이나 관련 장소를 지정하지만 무엇보다 전승자의 유무와 지속가능성이 중요하다. 어촌을 주목하고 어민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가 무엇보다 어촌과 어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전 및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2)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활용의 다양화

국가중요어업유산은 2012년 도입 당시 농업유산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처나 지자체는 물론 어민들도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그 결과 어업유산 지정 개소도 적고 세계농업 유산으로 지정된 어업유산도 없다. 정책 부재와 인식 부족 그리고 홍보 부족이 낳은 결과다. 어촌이나 어업자원의 다원적 가치나 관광과 레저와 콘텐츠 활용의 중요도에 비하며 어촌문화를 포함한 해양문화의 보전과 활용 정책은 매우 미흡하다. 도시민은 말할 것도 없고 어민들마저도 어업유산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심지어 해당지역 주민들마저도 어업유산을 알지 못하며 알고 있더라도 국가나 지자체 주도로 어업유산을 등재 하여 주민들은 정책 사업의 하나 정도로 인식할 뿐이다. 제도적 측면에서 본다면, 예산확보와 제도의 지속성을 위해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법적 근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어업이나 어업유산의 적용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며 농업의 부차적인 범위로 한정되어 있다. 어업유산의 성격에 맞는 공동체성이나 지역성의 측면에서 농업유산에 비해서 어업유산이 훨씬 적용가능성이 높다. 공간적으로도 어촌과 포구와 물양장까지 포함해 어업공간을 확대해서 적용해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과 국가중요농업유산의 추진 주체는 해양수산부와 농림축산식품부로 나누어져 있다. 농업과 어업 시스템이 차이가 있기에 일견 타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세계농업유산 등재 추진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이는 등재추진과 부처 간의 협의 부재로 인한 문제에서 발생하고 있다. 두 부처를 아우르는 농어업유산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이 요구된다. 지정된 유산의 후계인력 양성 프로그램이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산도 구들장 논인 경우 최소한 구들장논을 만드는 기술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며, 남해 죽방렴의 경우 죽방렴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제작 기술이 전승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개인이나 지자체의 힘으로 유지하기 어렵다. 또한, 지역주민의 힘만으로는 어렵다. 도시민과 함께 소비자와 함께 여행자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어업유산을 보전하는 것은 어촌과 어촌문화와 어민이 삶을 존속시키는 것이다. 그 출발은 연안습지이자 마을어장의 건강

한 생태계를 유지하는 일이다. 이는 어민들만 아니라 수산물 소비자이자 어촌관광이나 해양관광의 향유자인 도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 어민들은 현명하고 지속가능하게 어업활동을 해야 하고 소비자는 그 가치를 존중하는 수산물 소비나 갯벌이나 바다에서 생태여행이나 공정여행을 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의 출발을 어업유산 특히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마을어장과 관련 어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어업유산이 어촌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완도 청산도 구들장논이나 제주 발담처럼 국가중요어업유산도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유산자원 지원정책과 활용영역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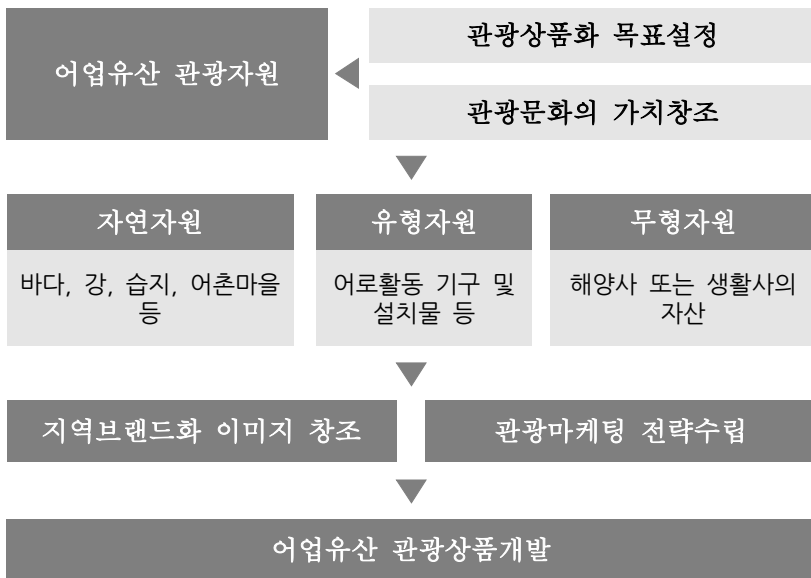
해양수산부는 물론 해당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어업유산 지역은 람사르습지,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갯벌세계유산 후보지역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는 곳이 많다. 하지만 이들과 연계된 통합브랜드나 정책공조는 찾기 어렵다. 어업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환경부, 문화재청 등의 정책공조가 필요하다. 또 현행법에서는 어업유산의 범위에서 어촌은 제외되어 있다. 우리나라 어촌은 마을어업 혹은 마을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어촌문화, 어촌사회, 어촌의례, 어항과 포구 등을 포함한 범역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해양문화와 문화콘텐츠로 유산활용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 끝으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의 실질적인 주체는 해당 어촌계나 어민들이지만 정책집행은 기초지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농업유산에 비해 어업유산은 관리와 활용에서 매우 미흡하다. 유산지정 후 해양수산부로부터 지원되는 보전 및 관리계획이나 다원적 가치 활용을 위한 지원사업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되는 사례가 많다. 마치 포괄보조금의 성격으로 이해하고 민원사업 해결 정도로 접근하기도 하다. 해당 지자체의 어업유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주민들도 그 가치를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 따라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리와 활용에 적합한 중장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해야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해갈 수 있는 민간조

직이나 지원조직을 구성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제 어촌도 그렇지만 연안도 더 이상 수산물을 채취하는 어민들만의 배타적 영역이 아니다. 공공재의 성격이 강해지고 있다. 지역사회는 물론 도시민,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해양쓰레기, 재해예방, 슬로피시까지 국제사회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어업유산의 보전과 활용이 모색되어야 한다.

3. 국가중요어업유산등록의 관광상품화

3.1. 관광상품화 방향설정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광상품화의 개념은 어업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이를 지속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사회는 정보산업의 발달 및 소득확대로 인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관광요인이 증가하면서 관광에 대한 욕구와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산업화의 발달 이면에 나타나는 환경오염과 물질적 가치추구가 커지고 무분별한 도시화의 개발과 치열한 경쟁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요인은 현대인의 인간성 상실과 정신적 황폐함이 증대되어 전통과 문화를 통한 인간성회복과 정신적 안정감 추구를 위한 쾌적한 친자연적 회귀현상이 관광형태의 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그림 2-12] 어업유산 관광상품화 과정

24) 전명숙. 전개서. P.27. 요약정리

어업유산의 보호와 관광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관광객의 다양한 체험적 문화의 가치를 통한 관광상품화를 실현하며, 문화적 동기에 의한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체험하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며, 지역의 생활양식이나 전통적 유산을 통한 체험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관광으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문화관광자원인과 문화의 특성에 대한 홍보와 어업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발굴하고 보존하여 공유할 수 있는 지속적인 관광상품화가 필수적이다.

3.2. 관광상품화 목표

국가주요어업유산의 관광상품화는 지역민과 관광방문객의 소비에 의한 지역적 경제발전이 창출되고 외부로부터 접근성 확보 및 기반시설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개발과 고용증대를 촉진하며 국가중요어업유산 관광상품화에 따른 지역주민의 정체성 확보 및 자긍심을 형성시킨다. 또한 어업유산에 대한 교육적 효과 및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으로 유산의 생명을 연장시키며 주변 환경의 정비효과도 이룰 수 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미학적, 전통적 관점에서 독특한 예술성 또는 창조성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보존가치를 인정받은 것으로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전통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가치를 재창출할 수 있는 인식을 새로이 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또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관광상품개발과 더불어 관광산업발전은 지역주민의 고용증대에 따른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지역 관광관련 산업의 경제성을 증가시키며 각종, 시설이나 사회간접자본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기여할 수 있다.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어업유산 소재지 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문화의식을 고취시켜주는 역할로 지방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이 가능하며, 관광자의 입장에서는 타 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한 어업유산 전반에 대한 이해 및 가치에 대한 인식을 고취시킨다. 또한 어업유산의 필수 요소인 자연환경에 대한 보존의식과 역사성을 고취 시킬

수 있으며 국가중요어업유산이 소재한 지역만이 가진 독특한 가치를 통하여 평가를 받고 관광명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표 2-6] 관광상품화 목표 설정

구 분	내 용
국가중요어업유산의 홍보	전통어업유산에 대한 자긍심과 문화가치를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주민의 고용증가 및 소득증대
지역사회 문화발전 도모	문화유산 소재지의 지역주민들의 정체성을 확보 독특한 가치로 관광명소로 거듭 나는 계기
관광지로 재탄생	어업유산의 관광 상품화

3.3.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활성화 사례

1) 고궁의 체험관광 활용

서울의 구도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고궁은 매우 특별한 관광자원이다. 이에 지금까지와 같이 건축물의 외형을 구경시키고 안내원이 설명하는 것, 수문장의 교체 행사를 구경시키는 것보다 한 차원 더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궁궐은 모든 전통적 삶의 양식 중에서 가장 높은 차원의 품격과 수준이 추구되고 실현되며 집결되어 있었던 곳이다. 따라서 왕과 왕비는 물론 왕실 가족, 궁녀, 내시, 의원 등 모든 구성원들의 생활 구석구석까지 재생·복원하여 공개하고, 실질적인 체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궁궐 중에서 어느 하나만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한 궁궐의 어느 한 부분만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궁궐 각 부분의 기능이 달랐던 만큼 그 고유 기능을 제 위치에서 재현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날씨가 춥지 않을 때에는 고궁의 뜰을 품격 있는 공연, 전시, 발표 등을 위한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²⁵⁾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7개의 우리나라 문화유산 중에 5개가 건축문화유산이다. 이 유산들은 전통성과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인정된 만큼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에도 보다 특별한 홍보와 계획이 필요하다. 관광객이 유산을 방문해 건축물을 관람하고 안내문을 보게 하는 것 외에 현장의 거주요원의 삶과 영상매체 등을 활용하여 보다 사실감 있게 각 유산의 이해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해인사의 장경판고는 그 경험의 범위를 해인사 전체로 확대시키는 한편 팔만대장경의 제작 과정, 보관 활용 의미 등을 이해시키기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원화성은 전통 도시의 구성, 성벽 구축 과정, 행궁의 역할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여겨진다. 이처럼 우리 고유의 건축문화유산을 관광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선결 요건을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²⁵⁾

첫째, 현재 건축문화유산 실내 환경은 전통생활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둘째, 검증과 고증을 통한 실제 전통생활의 복원이 되어야 한다.

끝으로 이렇게 복원된 전통생활 문화를 토대로 우리만의 차별화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낼 때, 옛 선조들의 건축문화유산을 실질적인 관광자원으로서 널리 활용하며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²⁷⁾

2) 거주체험 관광 속에 깃든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

관광객에게는 현대화된 특급호텔보다 한옥에서의 숙박체험이 더 효과적인 관광상품이다. 양반가옥은 고급 숙박 시설로 활용하고 전통마을은 단체숙박시설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관광객의 여건에 따라 숙박시설기능 뿐만 아닌 숙박을 겸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의 장소가 되게 할 수도 있으며, 근처의 다른 문화유산과 연계하여 다양한 문화체험으로 확대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개선해야 할 주요한 과제는 한옥이 거주 공간으로서 관광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내부에 대한 개선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구조의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지 않는

25) <https://www.gogung.go.kr>(궁 안에 퍼지는 차(茶) 향을 느껴 보세요)

26) <https://www.gogung.go.kr>(고궁 문화유산의 체험)

27) <https://www.gogung.go.kr>(건축문화유산의 관광 활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범위 내에서 이러한 개선을 가능케 하는 기술력과 디자인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즉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업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문화적 품위와 위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관리체계와 운영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관광은 숙박과 체험을 필수 조건으로 한다. 우리는 다양한 건축문화유산을 숙박 시설로 활용하면서 호텔과 관광지가 하나로 통합된 일련의 문화 체험을 욕심낼 수 있다. 이에 따라 템플 스테이 이외에 한옥 스테이, 마을 스테이, 서원 스테이, 향교 스테이, 암자 스테이, 행궁 스테이, 산성 스테이, 궁궐 스테이, 관아 스테이 등 모든 건축문화유산을 스테이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으며, 각 건축 유형에 맞는 전통문화를 체험케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선비 생활, 여성 생활 등은 물론 서화와 같은 예술 체험, 놀이 체험, 의복 체험, 연회 체험, 주막 체험, 판소리 체험, 잔치 체험, 풍류 체험, 술집 체험, 기생 문화 체험 등 모든 생활 문화의 영역을 스테이의 종류에 맞게 프로그램화하며, 그 체험 영역과 장소를 상호 연계시켜 관광상품화하는 전략을 세워 볼 수 있다.²⁸⁾

3) 건축문화유산의 활용을 실질적인 관광과 연계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은 고급호텔이나 고층건물의 구경이 아니라, 한국문화의 고유성을 체험하기를 원한다. 지금까지 우리의 전통건축문화유산은 그 외형적 구조물을 관광객이 눈으로 구경하고 안내문을 읽어 그 기능과 의미를 이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향후 관광 전략의 과제는 건축유산의 피상적 구경을 얼마나 건축과 삶이 어우러진 종합적 체험으로 이끌어 가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 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가능하다. ‘템플 스테이’가 사찰 건축과 사찰 생활에의 참여를 통해 불교적 분위기와 정신을 체득케 해주듯이 건축문화유산은 장소 제공처가 되어야 하며, 거주와 관리를 통해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은 건축문화유산을 문화 체험의 자리로 조성해야 한다.²⁹⁾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는 그 정통성과 생활화의 정도로 볼 때 중국과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범적인 생활 문화 사례였다. 중국과 일본에도 불교 사찰이

28) <https://www.gogung.go.kr>(건축문화유산의 관광 활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위하여)

29) <https://www.gogung.go.kr>(건축문화유산의 관광 활용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

다수 있지만, 우리나라만큼 종교적 목적에 부합하는 승려의 수행과 신도의 신앙 행위가 살아있는 방식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유교 및 불교 문화를 관광 상품으로 바꾸어 줄 수 있어야 한다. 템플 스테이의 가능성도 더 다변화하고 확대 보급될 필요가 있겠지만, 그보다도 아직 개발되지 않은 유교적 생활 체험의 관광상품화에 보다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안동문화권을 유교생활문화 체험단지로 조성하여 주택에서의 거주, 선비 생활의 경험, 각종 제례 및 의식의 체험, 유교적 여성 생활 체험, 풍류 및 예술의 체험, 서원과 향교를 통한 교육과 예절의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관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³⁰⁾

30) <https://www.gogung.go.kr>(건축문화유산의 관광 활용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Ⅲ. 갯벌과 보성 뽕배어업의 일반현황

1. 갯벌의 특성과 가치

1.1. 갯벌의 특성과 분포

1) 갯벌의 특성

갯벌이란 조석의 차이로 인하여 드러나는 ‘갯가의 넓고 평평하게 생긴 땅’으로 연안습지의 일부분을 지칭하며 개펄, 갯빨, 개빨, 간석지, 간사지, 해택 등 다양한 동의어 존재한다. 갯벌은 조석의 차이가 크고 파랑작용이 상대적으로 약하며 육지로부터 퇴적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내만이나 강 하구의 완만한 해저사면의 해안으로 따라 지구촌 도처에 형성되어 분포한다. 갯벌은 수산물생산 등 식량공급뿐만 아니라 야생 동·식물 서식과 오염물질 정화, 자연재해 조절, 생명지지기반, 레크리에이션 등 사회경제와 자연생태계 유지에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수산물 생산은 고막과 낙지 등 어패류뿐만 아니라 갯벌을 천일염 생산토대로 이용된다.

우리나라 서남해안 갯벌은 우리나라 서남해안은 완만한 해저사면의 얇은 수심, 큰 조차 등 갯벌형성에 유리한 조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갯벌은 구성하는 물질의 입도별로 니질(실트와 점토), 사질(모래), 니질과 모래의 혼합의 형태로 나타나며, 이들이 구성하는 다양한 환경에서는 다양한 생태계 형성과 함께 바지락, 동죽, 대합, 낙지 등 수산물의 보고이다. 갯벌은 우리나라 서해안과 같이 사질과 니질 퇴적물이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에서 조차가 상대적으로 크고 해저지형이 매우 완만한 해역에서 해안을 따라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 서해안은 평균수심이 44m로 얕으면서 퇴적물 공급이 원활하고 해저경사면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하고 평균조차도 목포에서 약 3m, 군산 5.3m, 인천 7.3m 등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커지고 있어 상대적으로 갯벌형성에 유리한 자연적 여건을 보유하고 있다.

2) 갯벌의 면적

국내 총 갯벌면적은 2,487.2km², 해역별로는 서해안에 2,084.5km²로 전체면적의 83.3%, 남해안에 402.7km²로 16.7%가 분포하고 있으며 지역별 갯벌분포는 전남이 전체 비율의 42.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인천 28.5%, 충남 14.3%, 경기도 6.7%, 전북 4.8%, 경남 2.8%, 부산 0.9% 등의 순이다.

[표 3-1] 우리나라 갯벌 분포 현황(출처 : 해양수산부, 2013전국갯벌면적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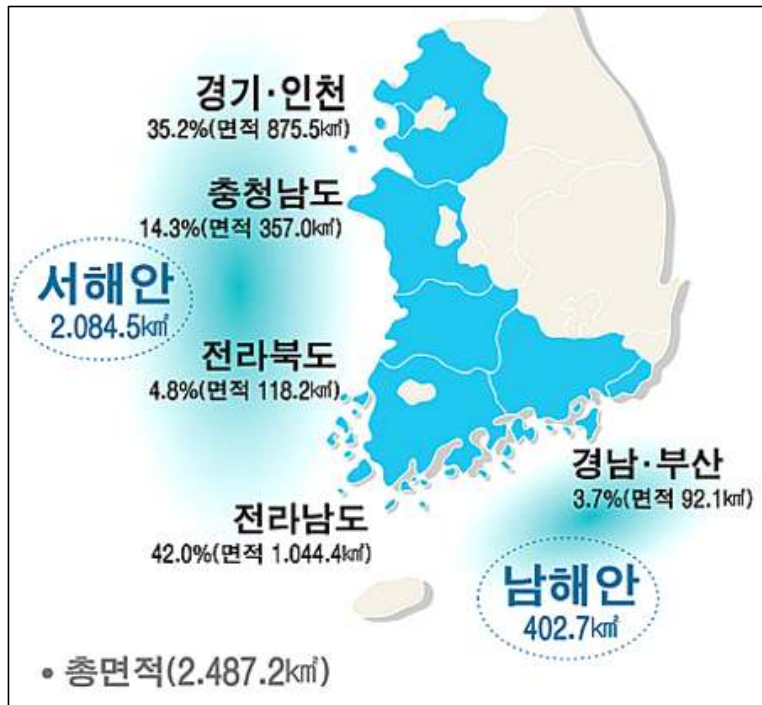
구분	면적(km ²)	비율(%)	비고
인천	709.6	28.5	서해안 : 2,084.5km ² 남해안 : 402.7km ²
경기도	165.9	6.7	
충청남도	357.0	14.3	
전라북도	118.2	4.8	
전라남도	1,044.4	42.0	
경상남도	68.8	2.8	
부산	23.3	0.9	
합계	2,487.2	100.0	

국내의 갯벌면적은 육지에 근접하고 상대적으로 개발이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 크고 작은 많은 간척매립으로 소실되었다. 일제시대(1910~1945년)에는 군량미 확보를 위한 미곡생산 목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간척사업 추진하였다. 해방 이후에는 일본 철수에 따른 사업마무리와 농경지 확보를 위한 소규모 간척사업이 활성화되었고 1961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제정되어 1972년까지 경제개발 계획에 의한 식량 증산 목적으로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을 시작하였다. 1972년부터는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대규모 간척사업 시행과 더불어 간척지의 배후지를 포함한 지역 농업종합개발사업 시행과 더불어 1991년부터 시화와 새만금 지구 등 다목적 종합개발 간척사업으로 지역별 농어촌 광역 종합개발 차원에서 거점개발 형태로 추진되었다. 그 동안 추진된 대규모 간척사업은 새만금 간척사업 이후로 대규모 간척은 추진되지 않고 공유수면매립법을 근거로 소규모

모의 매립사업이 추진되었고 전남갯벌은 그동안 대부분 농지확보차원에서 간척사업이 추진되어 넓은 면적의 갯벌이 사라졌다.

2) 갯벌의 분포

일반적으로 갯벌의 형성은 육지의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해안에서 해수 침전물질 등이 침전, 퇴적되어 형성된다.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을 걸쳐 2,489.4 km²³¹⁾(국토 면적의 2.5%)의 규모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5위 규모이고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가장 넓은 갯벌을 가지고 있으며 면적은 1,044km²로 전국의 42% 차지한다. 보성군의 갯벌 면적은 37.5km²로 전남의 3.6%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사만은 27.2km², 득량만은 10.3km² 면적이다.



[그림 3-1] 우리나라 전국 갯벌분포현황

31) 해양수산부, 2016년 기준

전남갯벌의 면적은 1,044.4km²로 우리나라 전체 갯벌면적 2,487.2km²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갯벌 대부분 해안과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해역과 내륙 깊숙이 발달하고 있는 만(bay)에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전남연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해안으로 내륙으로 형성된 만이 내륙을 둘러싸고 있는 크고 작은 섬과 갯벌형성에 적절한 조수간만의 차로 완만한 해저경사면과 육지와 주변해역으로 부터 유입되는 많은 퇴적물이 갯벌형성에 유리한 자연적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서해안의 크고 작은 많은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신안군은 가장 넓은 갯벌면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광군과 무안군 등을 포함하여 전남갯벌 전체의 80% 정도가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신안과 무안 그리고 함평만, 순천만, 가막만, 득량만, 여자만 등에는 대부분 니질(mud)갯벌이 분포되어 있다. 또한 바다로 개방된 광 및 가장 외곽에 위치한 도서의 해안을 따라서는 사질(sand)갯벌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전남갯벌의 시·군별 면적은 신안군이 가장 많은 347.4km², 무안군 147.6km², 영광군 145.5km² 등의 순이며 연안과 16개 시·군이 인접하고 있지만 영암군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신안군은 전남갯벌의 33.3%, 무안군 14.1%, 그리고 광군 13.9%를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신안과 무안갯벌은 대부분 니질퇴적물로 구성된 니질갯벌인 반면에 영광군은 대부분 사질퇴적물로 구성된 사질 갯벌이다.

3) 전남 갯벌의 특징

전남갯벌은 지형지질과 해황 등 환경적 특성에 따라 개방(open type)갯벌과 섬 (island type)갯벌, 만(bay type)갯벌 등으로 대분할 수 있고 이들 환경에 따라 생물학적 특성과 이용형태 등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개방갯벌은 주로 조류와 함께 바람과 파랑 등의 작용이 우세한 환경으로 무안, 함평, 신안 등의 가장 외곽 섬 및 육지의 바다 쪽 가장자리에 형성되어 있으며 개방갯벌은 니질퇴적물에 비해 해양생물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사질퇴적물로 주로 해안경관과 해수욕장 등 해양관광레저 활동의 기반으로써 제

공되고 있다.

섬갯벌은 수많은 도서로 둘러싸여 있어 상대적으로 폐쇄성이 큰 해역에 형성되며 육지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이 섬으로 막혀 나가지 못하고 주변에 퇴적된 니질 퇴적물로 구성되며 주로 파랑보다는 조류가 우세한 환경으로 각종 어패류를 포함한 수산자원과 다양한 해양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남 무안과 신안의 많은 도서로 둘러싸여 있는 해역이 대표적이며 이 갯벌에는 풍부하고 독특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형성하고 어패류 등의 각종 수산자원의 서식장과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섬갯벌은 개방갯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온해역을 보유하고 있어 갯벌생태체험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만갯벌은 바다가 육지내륙 깊숙이 발달한 거의 폐쇄성 환경으로 파랑보다는 조류의 향이 지배적인 환경으로 해양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독특하고 다양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을 토대로 어패류 등 수산자원의 서식장과 산란장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만갯벌은 섬갯벌과 개방갯벌에 비해 내륙 쪽으로 발달하고 있고 사질퇴적물보다는 주로 니질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산자원의 양식장으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안전한 정온해역을 유지하기 때문에 관광레저 등을 위한 활동공간으로서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4) 람사르협약

람사르협약(Ramsar Convention)은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1971년 2월 2일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람사르협약이라 부르며 일명 습지협약이라고도 한다.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국제회의와 실무자회의를 개최하였고, 1971년 2월 2일에 이란의 람사르에서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1975년 12월 21일에 발효되었는데, 2015년 5월 8일 기준으로 168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2,000곳 이상의 습지가 람사르습지로 등록되어 있다. 3년마다 당사국총회를 소집하여 협약의 이행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습지보전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에 대한 지침과 다음 3년에 대한 협약사무국 예산을 채택한다.³²⁾

32) <http://rinks.aks.ac.k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람사르협약)

1980년에 이탈리아의 칼리아리(Cagliari)에서 제1차 당사국총회(COP)가 열렸다. 2008년 10월에는 경상남도 창원시에서 람사르총회가 개최되었는데, 이는 제10차 당사국총회에 해당된다.

람사르협약은 습지보전과 현명한 이용(wise use)을 비전으로 한다.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지속 가능한 발전의 측면에서 환경생태학적 접근을 통해 습지의 생태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라고 정의되며 습지의 현명한 이용은 습지를 보전하면서 지속 가능하게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에게 모두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³⁾

환경부에서는 람사르협약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와 기대감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첫째, 사람들로 하여금 소중한 자원인 습지와 습지 생태계를 보전해야 할 필요성을 일깨우며, 효과적인 습지보전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다. 둘째, 국내 습지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을 일으키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철새이동경로상의 국가들과 철새보호협정을 추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요 종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다. 셋째, 환경 외교를 하는 데 있어 우리나라의 대외 위상을 높일 수 있다.”

람사르협약은 단일 형태의 생태계(습지) 보전과 관련된 범세계적 차원의 협약이며, 자연보전 분야에서 이러한 형태의 최초 협약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점은 이 협약이 습지보호에만 국한하지 않고 다른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추가 협약에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³⁴⁾

33) <http://rinks.aks.ac.k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대암산 용늪 탐사)

34) <http://rinks.aks.ac.kr>(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람사르협약)

[표 3-2] 랍사르습지 등록 현황 : 2017.06월 기준(출처 :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https://www.konetic.or.k>)

지역명(등록명)	위 치	면적(k㎡)	등록일자
대암산용늪	강원 인제군 서화면 심적리 대암산 일원	1.06	1997.03.28
우포늪	경남 창녕군 대합면·이방면·유어면·대지면 일원	8.54	1998.03.02
신안장도 산지습지	전남 신안군 흑산면 비리 장도(섬) 일원	0.090	2005.03.30
제주 물영아리오름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수령산 일대 분화구	0.309	2006.10.18
무제치늪	울산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정족산 일원	0.04	2007.12.20
두웅습지	충남 태안군 원동면 신두리	0.065	2007.12.20
제주 물장오리오름	제주 제주시 봉개동	0.628	2008.10.13
오대산 국립공원 습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 일대(소황병산늪, 질외늪), 홍천군 내면 명개리 일대(조개동늪)	0.017	2008.10.13
강화 매화마름 군락지	인천 강화군 길상면 초지리	0.003	2008.10.13
제주 1100고지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중문동~제주시 광령리	0.126	2009.10.12
제주 동백동산 습지	제주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0.590	2011.03.14
고창 운곡습지	전북 고창군 아산면 운곡리	1.797	2011.04.07
한강밤섬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0.273	2012.06.20
제주 숨은물뱅듸	제주 제주시 광령리	1.175	2015.05.13
한반도습지	강원 영월군 한반도면	1.915	2015.05.13
순천 동천하구	전남 순천시 도사동, 해룡면, 별양면 일원	5.399	2016.01.20
순천만·보성갯벌	전남 순천시 별양면·해룡면·도사동 일대, 전남 보성군 벌교읍 해안가 일대	35.5	2006.01.20
무안갯벌	전남 무안군 해제면·현경면 일대	35.89	2008.01.14
서천갯벌	충남 서천군 서면, 유부도 일대	15.3	2009.12.02
고창·부안갯벌	전북 부안군 줄포면·보안면, 고창군 부안면·심원면 일대	45.5	2010.02.01
증도갯벌	전남 신안군 증도면 증도 및 병풍도 일대	31.3	2011.07.29
송도갯벌	인천 연수구 송도	6.11	2014.07.10

1.2. 갯벌의 가치

1) 환경적 가치

일반적으로 갯벌의 형성은 육지의 하천 등에서 유입되는 토사와 해안에서 해수 침전물질 등이 침전, 퇴적하면서 형성된다. 야생 동·식물 서식지는 무척추동물류, 어류, 조류(algae)뿐만 아니라 물새류 등의 먹이제공 및 철새들의 이동 경로의 중간기착지로서 휴식처 역할을 하며, 오염물질의 정화는 육지와 하천을 통해 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지질학적 화학적 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정화기능이 있으며, 자연재해 조절은 폭풍이나 태풍 등에 기인하는 침수, 홍수, 해안침식 등에 대한 완화조절 기능이 있다. 산소생산, 탄소포획, 그리고 양물질 순환 등과 같은 생명체 유지의 기반과 최근 기후변화대응으로서 탄소포획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경사가 완만하고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큰 해안에 오랫동안 퇴적물이 쌓여 형성되는 갯벌은 어류, 갑각류 등 다양한 바다생물이 서식하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알려져 있다. ‘세계 5대 갯벌’인 별교 갯벌은 인근에 공장이 한 곳도 없어 폐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 청정해역이며 2005년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보성 별교갯벌은 우리나라에서 상태가 가장 우수한 2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별교의 갯벌이 가진 생물종의 다양성과 생태적 가치가 국가자연자산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2003년 12월 31일 연안습지 보호구역³⁵⁾으로 지정되었다. 2004년에는 동북아 두루미보호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고, 2006년 1월 20일에는 연안습지로는 최초로 람사르협약에 등록하였다.

[표 3-3] 보성 별교갯벌의 람사르 등록

지역명	위 치	면적	특 징	지정일자
보성갯벌	보성군 별교읍 해안가 일대	35.5 km ²	멸종위기종 흑두루미의 국내 최대 월동지이며 수산자원 풍부	2006년 1월 20일

35) 국토해양부고시 제2003-96호

여자만의 갯벌은 약 2,640만㎡의 광활한 지역으로 환경적으로 훼손되지 않은 자연환경의 갯벌에 다양한 생물들이 군집하여 살아가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희귀 철새 도래지다.³⁶⁾ 갯벌에 펼쳐진 갈대숲은 수산생물의 서식지인 동시에 습지 생태계 유지의 핵심이며 자연경관이 뛰어나며, 여자만의 하천 주변을 중심으로 사초, 갈대, 억새들이 자생 군락을 이루고 있고, 염지 습지식물의 일종이며 새들의 먹이가 되는 칠면초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특히 넓은 갈대 군락은 새들에게 은신처, 먹이를 제공하며 자연정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변의 논 역시 새들의 먹이가 되어주고 있다.

고요한 바다와 조수의 영향으로 물과 영양 물질이 주기적으로 변화되어 갯벌의 생산력을 높여줌으로써 안정된 생태계를 이루는 여자만에는 국제 보호조류 흑두루미와 검은머리 갈매기가 세계 개체 수의 약 1% 이상 서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 희귀조류 재두루미도 발견되고 있다. 그 외 저어새 및 황새의 발견기록이 남아 있으며, 흑부리오리가 세계 전체 개체의 18% 정도가 서식하고 있다, 또 민물도요는 세계 전 개체의 7%가 서식하고 있다.



[그림 3-2] 벌교갯벌 흑두루미와 흑부리오리

36) 차준성. 갯벌 환경 개선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P.21. 참고.

2) 경제적 가치

갯벌로부터 얻는 이득은 기본적으로 건강한 생태계의 생태적 기능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최근 생태적 상품과 서비스가 궁극적으로 건강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욕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갯벌에서 양식되거나 생태계로부터 직접 얻을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서 식량, 섬유, 의료, 광물, 유전자원 등이 존재하며 생태계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비물질 혜택으로 정신적·문화적 혜택, 독특한 지식 및 문화와 언어 이해의 다양성이 생성된다.

국토해양부는 보성군 갯벌(2011)과 고창군 갯벌(2012)에 대해 조건부가치추정법(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³⁷⁾ 이용하여 갯벌의 보전가치를 추정하였다. 보성군갯벌의 보전가치는 연간 25,809천원/ha으로 평가하였고 경남 고성군갯벌의 보전가치는 연간 52,789천원/ha으로 또한 해양수산부(2014)는 위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경남 강진만 갯벌과 제주 종달리갯벌에 대한 보전가치를 연간 각각 28,602천원/ha와 308,175천원/ha으로 4개 지역 갯벌에 대한 보전가치에 대한 가치 추정결과는 연간 최소 25,809천원/ha에서 최대 308,175/ha으로 지역갯벌에 따라 약 1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갯벌의 보존가치는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많고 인지도가 높은 갯벌에서 크고 관광객이 적고 인지도가 낮은 보성갯벌에서 낮게 평가되었다.

37) 비시장재화의 시장이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으나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가상시장을 설정하고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설문조사 또는 실험실적 조사를 통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최대지불금액(willingness to pay, WTP) 또는 환경의 질 개선을 포기하는 대가로 소비자가 보상받고자 하는 최저수취금액(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산출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환경의 질 개선의 효과, 자연경관, 휴양지, 농경지, 산림 등에 대한 가치평가, 식량안보, 국토 및 자연생태계보전 등 비시장재화의 간접가치, 존재가치 및 선택가치 평가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표 3-4] 국토해양부의 보성군과 고창군 갯벌 보전가치 추정(출처 : 해양수산부 해양관리공단, 2014.)

구분	추정방법	추정가치(천원/ha)
전남 보성군갯벌(2011)	CVM	25,809
경남 고성군갯벌(2012)	CVM	52,789
경남 강진만갯벌(2014)	CVM	28,602
제주 종달리갯벌(2014)	CVM	308,175
평균		103,844

3) 체험관광의 가치

갯벌자체 혹은 갯벌환경과 생태 등은 해수욕장 및 연안습지보호지역과 수상레저 등 교육·체험·레저 등의 관광기반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어촌체험마을, 갯벌센터, 관광지원시설, 수상레저사업장 및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다.

전남지역 어촌체험마을은 29개소, 해수욕장 65개소, 연안습지보호지역 5개소 등을 기반으로 갯벌자체 뿐만 아니라 갯벌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의 채취와 포획, 해수욕, 그리고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과 연계한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³⁸⁾ 전남 연안 시·군에서는 하계휴가철 동안 해수욕장 운과 더불어 갯벌에서는 갯벌 체험, 조개잡이체험, 어업체험, 낚시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습지보호지역인 무안갯벌 일원에서는 갯벌센터를 중심으로 무안갯벌 생태학교, 토요일갯벌 가족스토리, 인형극 낙지엄마 등의 체험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습지보호지역인 순천만갯벌에서는 순천만 생태체험선, 스카이큐브, 갯벌탐험, 순천만정원 관람차, 철새 탐조교실 등이 운영되고 보성별교갯벌 일대에서는 짙뚱어낚시체험, 빨배타기, 갯벌체험, 습지저서 동·식물 관찰체험 등 진도갯벌에서는 개매기체험 등 관광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되고 있다. 무안군 송계마을에서는 정치망체험, 갯벌체험, 갯바위낚시체험, 양식장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이 운

38) 김동주. 갯벌을 활용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갯벌산업 육성 방안.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정책과제 2017-17. 2017. P.16. 참고.

영되고 있고, 신안군에서는 수락마을, 추포마을, 둔장 마을, 우전마을 등지에서 갯벌체험, 개막이체험, 조개잡이체험, 바다낚시체험 등의 체험프로그램 이외에도 어촌계를 중심으로 지역의 역사와 문화 등을 연계하여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존재한다.

4) 교육 및 관광레저기반의 가치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순천만갯벌, 증도갯벌, 무안갯벌은 갯벌방문센터가 운영되고 있어 이를 기반으로 갯벌 자체뿐만 아니라 갯벌의 환경과 생태 및 역사와 문화 등을 연계하는 교육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순천만자연생태관은 사업비 약 159억 원이 투입된 연면적 2,409㎡의 3층 규모의 건물로서 연간 약 200만 명의 탐방객이 방문하며 생태환경교실과 생태투어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무안군 무안갯벌센터는 사업비 약 202억 원이 투입된 연면적 3,277㎡의 2층 규모의 건물로서 주민워크숍과 갯벌마당놀이 공연 등 다채로운 주민연계사업을 추진하며 신안군 증도갯벌센터는 약 13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연면적 4,120㎡의 3층 규모의 건물로서 염전체험과 숲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함께 슬로시티 연계사업(민박, 슬로푸드식당 등)을 통해 주민 연계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다.

5) 전남 갯벌의 가치

전남갯벌은 전국 면적대비 42%(1044.4km²)로서 환경, 생태, 자원의 측면에서 지역의 중요한 자산으로 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수산자원 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도립공원 등으로 지정되어 관리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들에게는 고막, 낙지, 김, 천일염 등의 수산업의 기반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체험·레저 등의 여가활용공간으로서 관광객 창출과 경제적 창출을 추구하는 삶과 생활공간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0조에³⁹⁾ 따라 수산자원

39) 제40조(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해양수산부장관은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대한 수산자

보호와 육성을 위해 지정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로서 전남지역의 내수면을 제외한 해수면은 함평만, 완도·도암만,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등 5개 만(bay)의 해역과 육역을 대상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동·식물의 서식장인 동시에 산란장으로서 갯벌을 포함하여 수산자원의 기반이 되고 있다.

[표 3-5] 전라남도 수산자원보호구역지정 현황(출처 : 해양수산부 2016보도자료 2. 2)

명칭	대상 지자체	읍·면
함평만	무안군	현경면, 해제면
	영광군	염산면
	함평군	함평읍, 손불면
완도·도암만	강진군	강진읍 등 7개 읍면
	완도군	완도읍 등 5개 읍면
	장흥군	안양면 등 4개면
	해남군	북평면, 북일면
득량만 여자만 가막만	고흥군	도양읍 등 9개 읍면
	보성군	조성면 등 4개면
	순천시	별량면, 해룡면
	여수시	돌산읍 등 5개 읍면

습지보호지역은 「습지보전법」 제8조에⁴⁰⁾ 의하여 자연생태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거나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희귀하거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고 도래하는 지역의 특이한 경관과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에 대하여 지정되며 전남지역은 2001년 무안갯벌을 시작으로 현재 6곳의 갯

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0) 제8조(습지지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주변지역을 습지주변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별이 습지보호지역 지정되었으며 면적은 125km²로 국내 습지보호지역 면적의 54.1%를 점유하고 있다.

[표 3-6] 전남지역 습지보호구역 지정현황

명칭	지역	지정일
제1호 습지보호지역	무안갯벌	2001. 12. 28.
제2호 습지보호지역	진도갯벌	2002. 12. 28.
제3호 습지보호지역	순천만갯벌	2003. 12. 31.
제4호 습지보호지역	보성별교갯벌	2003. 12. 31.
제9호 습지보호지역	증도갯벌	2010. 01. 29.
제13호 습지보호지역	비금·도초도갯벌	2015. 12. 29.

도립공원은 「자연공원법」 제4조에⁴¹⁾ 따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및 특별 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하는 공원이며 전남갯벌을 대상으로 하는 도립공원은 무안갯벌, 신안갯벌, 보성별교갯벌 등 3곳에 204.123 km²의 면적이 지정되어 있다. 무안갯벌도립공원(37.123km²)은 무안갯벌의 습지보호지43역과 동일한 지역이며 신안갯벌도립공원(144km²)은 증도갯벌과 비금·도초갯벌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한 갯벌을 포함하고 있으며 별교갯벌도립공원(23km²)은 보성별교갯벌의 습지보호지역을 포함하여 보다 광범위하게 지정되어 있다.

41) 제4조(자연공원의 지정 등) 국립공원은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고, 도립공원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광역시립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에 각각 지정·관리하며, 군립공원은 군수가, 시립공원은 시장이, 구립공원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각각 지정하고 관리한다.

1.3. 바덴 해 연안 갯벌의 개발과 보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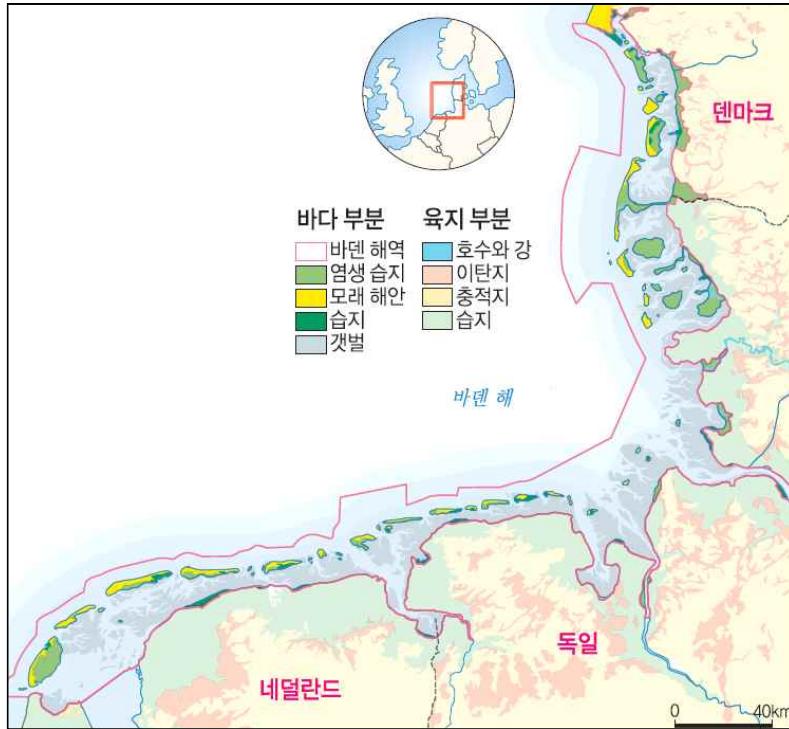
1) 바덴 해 연안 갯벌의 개요

바덴 해는 덴마크에서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에 이르는 해안 생태계보호 구역이다. 1987년에 람사르협약으로 보호 습지에 등록되었고 2009년에는 갯벌로서는 유일하게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이곳은 과거 50년간 간척을 통해 많은 갯벌이 사라졌으나, 1982년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 세 나라가 공동으로 바덴 해 공동 관리 체계를 수립하여 갯벌 보호에 관한 행정이나 법령 개정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갯벌을 비롯한 사빈, 해안 사구 등의 해안지형을 보전할 수 있었고, 수많은 종의 어류와 조류, 포유류 등이 서식하는 해양 생태계의 보고로 남게 되었다.

잘 보전된 갯벌은 관광 자원으로서도 가치가 높아, 생태 관광 수입이 연간 최대 10조 원에 이른다. 세계적으로 연안 습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바덴 해 갯벌은 지속 가능한 갯벌 관리의 좋은 사례이다.

덴마크 서해안의 호(Ho)만에서 시작해 독일을 거쳐 네덜란드 텍셀(Texel)섬에 이르는 바다를 바덴(Wadden)해라고 부른다. 북해의 일부인 바덴해는 밀물과 썰물의 간만차가 3m를 넘어 세계 최대 규모의 갯벌 중 하나다. 갯벌 길이만도 무려 1만km에 이른다. 이 갯벌에서는 태곳적부터 내려온 자연 그대로의 지형변화와 생물학적 진화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 유럽을 통틀어 손상되지 않은 유일한 해안습지로 평가된다. 또 셀 수 없이 많은 해양 식물, 무척추동물, 어류, 양서류, 파충류, 조류, 포유류 등의 보금자리로 손꼽힌다. 이 중 독일에 위치한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에서는 고유의 해양 무척추동물만도 2000종이 넘게 살고 있고 독일에서는 유일하게 회색 바다표범이 자연 번식하고 있다. 바다표범은 바덴해 전체에서 1만9000마리, 이 중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연안에서는 7500여 마리가 사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북해의 돌고래는 이 갯벌 연안에 있는 질트섬과 암름섬 근처 바다를 산란장으로 이용한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에는 매년 200만 마리의 철새가 날아들어 중간 휴식처로 활용하고 있다.⁴²⁾

매년 7~9월 유럽에 서식하는 흑부리오리의 거의 전체에 해당하는 20만 마리가 여기서 가까운 트리센섬에서 털갈이를 하는 장관을 연출한다. 8만5000쌍의 연안 조류가 알을 낳아 새끼를 부화하는 등 이곳은 새들의 낙원이 된 지 오래다.⁴³⁾



[그림 3-3] 바덴 해의 지형 분류도(출처 : 두피디아 포토커뮤니티 - <http://www.doopedia.co.k>)

2) 바덴 해 연안 갯벌의 보호의 의의

자연의 보고(寶庫) 바덴해의 갯벌을 지키기 위해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3개국이 협력하고 있다. 갯벌이 인위적인 국경에 따라 나뉘어 있지 않고 식생과 서식 동물도 국경 구분과는 상관없기 때문이다. 이들 3개국은 1977년부터 갯벌 보전을 위해 협력을 시작했고 공동 사무국까지 구성해 보전활동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42) <https://m.dongascience.donga.com>(덴마크~獨~네덜란드 바덴海 갯벌)

43) <https://www.donga.com>(동아닷컴)

3개국은 매년 50만 유로(약 7억 여원)에 이르는 보전비용을 똑같이 삼등분해서 지원한다. 갯벌 면적이 가장 적은 덴마크도 이 점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각국은 공동 사무국의 조율에 따라 자국 소속 갯벌에 대한 구체적인 보전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1985년 쉘레스비히홀슈타인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니더작센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었다. 1992년에는 함부르크 갯벌이 국립공원으로 추가됐다. 특히 쉘레스비히홀슈타인 국립공원은 지정 당시 면적이 4,410km² 로 서울 여의도의 518배가 넘었고 갯벌 면적이 1,300km² 인 유럽 최대의 단일 국립공원이었다. 이 국립공원은 지정된 지 14년 만인 1999년 한 차례 확대됐고 2002년에 또 확대돼 현재 면적은 4,550km² 가 됐다.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자국 지역의 갯벌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보호구역으로 만들어 보전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독일의 갯벌 국립공원을 포함한 바덴해 갯벌의 많은 지역이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에 의해 1992년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로 지정됐다. 1990년에는 유네스코가 쉘레스비히홀슈타인 국립공원을 ‘인간 및 생물의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등록하기도 했다. 3개국은 갯벌 보전을 위해 무조건 인간의 접근을 막는 방법을 쓰지는 않는다. 대신 안정되고 지속 가능하며 오염 없는 바덴해라는 목표를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이해시켜 자연스럽게 보전하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바덴해 갯벌에 친근감을 갖고 이를 보전하려는 자발적인 욕구도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이다.⁴⁴⁾

3) 관광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미어 국립공원⁴⁵⁾의 경우에는 보전목표를 추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관광업을 추진했다. 매년 200만 명 이상의 독일과 해외관

44) <http://m.dongascience.donga.com>(덴마크~獨~네덜란드 바덴海 갯벌)

45)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미어 국립공원 또는 쉘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해 국립공원 (독일어: Nationalpark Schleswig-Holsteinisches Wattenmeer)은 독일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 북해 연안에 있는 국립공원이다. 쉘레스비히홀슈타인 주의회가 1985년 7월 22일 제정한 국립공원법에 의하여 1985년 10월 1일 설립되었고, 1999년 크게 확장되었다. 니더작센 바덴미어 국립공원, 함부르크 바덴미어 국립공원, 자연보호구역이 아닌 엘베 강 하구의 나머지 지역과 함께 북해의 일부인 독일령 바덴해를 이룬다.

관광객이 이곳에서 하룻밤 이상 숙박한다. 짧은 일정으로 잠깐 둘러보는 관광객도 매년 1,100만 명 정도다. 관광객들은 배를 이용해 갯벌 연안을 따라 돌고래와 새, 바다표범 등을 관람한다. 썰물이 시기에는 직접 갯벌로 입장해 자연을 느끼며 체험한다. 관광객들이 갯벌에 입장할 때 인도하는 70여 명의 안내인은 모두 지역주민들로 갯벌의 날씨, 조류의 움직임에 대해 자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관광수입은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할리겐(Halligen)⁴⁶⁾ 주민들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의 증거다. 할리겐은 만조 때 바닷물에 일부 잠기는 갯벌의 섬으로 이곳에 집을 지어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다. 밀물이나 폭풍 때는 주택 바로 턱 밑까지 바닷물이 올라온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국립공원에 15개 정도의 할리겐 거주민들은 관광으로 이익을 보기 위해 국립공원으로 편입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정서 때문에 지금까지 갯벌 보전활동이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어업 등 산업 활동을 법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산업주체와 주민들이 자발적 협약을 맺어 조정하며 독일에서는 이 협약이 아주 잘 이뤄지고 있다. 산업 활동 범위는 자연이 지속가능한 선에서 허용된다. 예를 들어 조개를 채취하는 대신 양식을 하도록 협약을 맺고 있다. 어부들은 조개를 확보할 수 있고 자연은 갯벌을 보전하는 효과를 얻는다. 사회적 협약을 맺을 때 보호청은 연구를 통해 국립공원의 식생에 관한 각종 현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전의 필요성에 수긍한다.⁴⁷⁾

46) Halligen(독일어) 또는 halliger(덴마크어, 단수 Hallig)는 보호용 제방이 없는 작은 섬을 말한다. 홀슈타인의 바덴해 북해 연안에 있는 북 프리지아 제도에는 독일의 할리겐이 10개 있으며 덴마크 서해안(덴마크 바덴해 제도)에는 1개가 있다.

47) <https://m.dongascience.donga.com>(덴마크~獨~네덜란드 바덴海 갯벌)



[그림 3-4] 슬레스비히홀슈타인 바덴미어 국립공원(출처 : 두피디아 포토커뮤니티
- <http://www.doopedia.co.k>)

2. 보성뽕배어업의 일반적 가치

보성 뽕배어업은 빠지기 쉬운 미세한 뽕에서 이동과 채취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뽕배를 사용해 꼬막을 잡는 어업이다. 1451년 고려사에 ‘강요주’라는 기록이 있으며 1481년에는 동국여지승람에 꼬막이 보성의 특산물로 기록된 것으로 보아 500여 년 이상의 전통어업으로 추정되어진다.⁴⁸⁾

보성뽕배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은 별교의 환경보전은 물론 지역적 자긍심과 인지도와 관광 등 경제적 효과에서도 지금까지 별교사회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창출할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와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고 보성 역사에 길이 남을 쾌거로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다. 국내 최초의 중요어업유산지정은 지역적으로도 대단한 보성의 가치이며 지역브랜드를 한 단계 끌어올릴 만한 일이다. 특히 어업유산 지정은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그 효과와 영향이 영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고 또한 별교 갯벌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보전과 지원이 늘어나는 효과를 창출하며 어업유산 지역의 이해 당사자들의 보전활동 참여가 확대되고 위협요소의 감소 효과도 얻게 되며 보존 상태에 대해 정기적 모니터링으로 지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되고 가장 큰 효과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이익과 고용 기회와 수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추가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지역의 계획과 관리를 향상시키게 된다.

2.1. 뽕배의 유래와 명칭

뽕배어업이 주민의 생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고 뽕배어업을 통해 꼬막을 채취해 수익을 공동 배분함으로써 마을 공동체 유지의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점은 높게 평가된다. 지금과 같은 모습의 뽕배는 약 120년 정도이고 훨씬 오래 전부터

48)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전남 보성 ‘뽕배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널빤지를 이용하여 갯벌에서 수산물을 채집하거나 이동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명칭은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지만 대체로 널, 널매, 뺨차, 뺨배, 널배 등으로 불렸다. 초기의 뺨배는 보통의 널빤지를 이용하여 물건을 실어 나르는 정도였으며 이후 뺨배가 어민들의 중요한 운송 수단 및 갯벌에서의 수산물생산 활동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되었고 최근 FRP를 이용한 대량생산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갯벌 실용성 문제로 개발에 실패하였다.



[그림 3-5] 전통뺨배 및 전통뺨배 경주대회

설 명절 이후 정월 대보름까지 주민들의 생업에 중요한 도구로 쓰인 뺨배를 깨끗이 손질하거나 풍어를 기리는 마음으로 집안에 모셔두는 풍습이 존재하였으며 각종 어류의 산란철인 5~6월에 뺨배 경주 대회를 열어 송아지를 경품으로 이용할 정도로 주민들의 독특한 갯벌 문화로 발전하였다. 벌교 갯벌의 뛰어난 경관은 예로부터 많은 예술가들에게 예술적 영감을 주기도 했으며, 수많은 사진 작품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등, 미학적 기능이 뛰어나다.

2.2. 뺨배의 이용 및 제작방법

뺨배가 이용되는 지역의 갯벌은 대체로 바닷가에서 1.5km 거리에 이르고 경사도는 거의 없어 도구를 이용한 이동수단이 필요하다. 대상지의 벌교갯벌 알갱이

의 크기는 silt⁴⁹⁾와 clay⁵⁰⁾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아주 미세한 갯벌 진흙(mud)으로 사람이 갯벌에 들어가면 매우 깊게 빠지는 특성 때문에 빨배가 이용되고 발달하게 되었다.

빨배를 구성하는 각각의 부분 명칭으로는 널판, 이망, 횡 방지대, 발 받침대, 매미, 기계받침대, 가로 이망 등으로 간단한 구조로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장치들로 부분별 기능이 다르다.

[표 3-7] 빨배의 부분 명칭 및 기능

부분 명칭	기 능
널 판	배의 본체 부분으로 작업과 운송의 중심적인 역할을 함(1:9의 구조)
이 망	빨배가 진행할 때 앞부분이 갯벌에 처박히지 않도록 하여 속도를 빠르게 하는 역할
횡방지대	이망의 휘어진 부분이 다시 펴지는 것을 방지하고, 밧줄을 매어 끌 수 있음.
발받침대	빨배의 끝 부분에 설치되는 나무 토막으로 운전자의 디딤발 버팀목 역할
매 미	빨배의 고막 채취 기구 받침틀
기계받침대	빨배의 기계 높낮이 조절 기능
가로 이망	빨배의 고막 채취 시 옆으로 이동하는데 앞부분 역할



[그림 3-6] 빨배의 횡방지대 및 매미

49) 미사 : 광물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그 지름이 0.004~0.06mm에 이르는 퇴적물 입자.

50) 점토 : 암석이나 토양의 풍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입자의 지름이 0.002mm 이하인 아주 작은 알갱이를 의미

뿔배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는 소나무, 나왕, 삼나무 3종이 존재하며 삼나무 뿔배는 가격이 비싸기는 하나 가볍고 다루기가 편하며 속도가 빠르면서 작업능률이 높은 장점이 있다. 뿔배제작 시 나무의 뒤틀림을 막고 쉽게 구부리기 위해 바닷물을 보름 정도 침수시킨 뒤 불을 이용하여 이망을 구부리며 뿔배의 두께는 대체로 2.4cm, 이망의 곡률 각도는 약 15.7° , 너비는 약 30cm, 길이는 약 270cm로 너비와 길이가 1:9의 비율을 이룬다.

[표 3-8] 뿔배의 제작 과정(출처 : 순천지역 갯벌에서만 이용되는 뿔배의 구조적 특성 탐구)

순 서		제작 방법
1	통나무 쪼기	제재소에서 두께 3cm, 길이 약 270, 너비 30cm 크기로 켜
2	바닷물 침수	바닷물이 잠기는 갯골에 15일 정도 담가 뒤틀림을 방지
3	나무결 구분	나무의 밀등을 이망(앞) 부분으로 하여 마찰력 최소화
4	이망 구부리기	앞부분을 고정시키고, 구부리는 지점에 물을 적시면서 불을 피워 서서히 구부림.
5	중심대 넣기	이망의 각도만큼 3cm 두께, 길이 45cm 크기로 이망 중앙에 부착
6	부착물 달기	구벽지, 매미, 발받침대, 뿔배 고정 및 끄는데 쓰는 밧줄 등



[그림 3-7] 뿔배 이망 성형 과정

빨배 전진 방법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 버팀 나무와 발가락을 고정시키고 동력원 역할을 하는 발은 빨배 우측 10cm 부근에서 빨을 약 1m 길이로 힘차게 밀어서 작용 반작용의 방법으로 전진하며 빨배의 후진 방법은 없으며 빨을 이용해 뒤로 이동할 수 있다. 빨배의 방향 전환 방법은 받침점 역할을 하는 왼발이 하단에 고정되어 있고, 동력원인 오른발을 빨배의 안쪽으로 밀면 좌회전, 바깥쪽으로 밀면 우회전이 되는데 받침점의 방향이 빨배의 뒷부분으로 지렛대의 원리와 같다.

2.3. 보성별교꼬막 주산지 형성 및 명성

보성군의 여자만, 득량만 일대의 갯벌은 찰지고 영양이 풍부하여 예로부터 많은 양의 꼬막이 자연 서식하였으며, 구한말에 처음으로 여자만 일대에 꼬막 양식이 시작되었다.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수산업은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되면서 양식 산업의 확대를 위하여 국립수산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1969년 천해간석지에 대한 기본조사를 총 9개 시도, 64개 시군을 대상으로 진행하여 이들 지역의 연차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보성군 여자만, 득량만 일대에 꼬막 양식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대량으로 양식하게 되었다.

보성군의 여자만, 득량만 일대에는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예부터 꼬막이 많이 생산되었는데 그 맛은 여자만 내에서 생산되는 꼬막 중에서 으뜸이라 하여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올릴 만큼 유명한 식품으로 알려져 왔다. 1960년대 이후 꼬막 양식업의 발달로 인하여 생산량이 증가되면서 보성별교꼬막의 유명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으며 이후 꾸준한 보성별교꼬막 생산농가의 노력과 보성군청의 지원으로 양식기술 및 어장관리기술 등이 보급되면서 맛과 영양이 풍부한 꼬막을 대량 생산할 수 있었다. 또한 ‘보성별교꼬막축제’를 개최함으로써 전국적으로 맛과 영양이 풍부한 보성별교꼬막을 소개하여 그 우수성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한국 현대문학사의 대표적인 대하소설로 꼽히는 조정래의 『태백산맥』에서는 “간간하고

쫄깃쫄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별교꼬막을 한 접시 소복하게 밥상에 올려놓고 싶다.”라고 보성별교꼬막을 소개하고 있다.

IV. 보성빨배어업의 관광상품화 방안

1. 보성빨배어업 관광상품화 방향성

1.1. 사회 문화적 분야

지역 브랜딩 전략 구축으로 지역관광의 주요소재로 어업유산의 문화적 가치 재 발견하고, 개인이 소장하거나 전승한 어업유산 활용을 위한 전시 지원과 어업 유산 활용을 위한 자격 제고 등 다른 장르의 결합과 현대적 계승을 위한 예술적 가치 활용 방안은 빨배 디지털체험 프로그램 개발 또는 어업유산과 현대기술을 접목한 창조산업 기반 구축으로 빨배문화 창작활동지원 및 빨배제작 기술 분야 현대화 및 전승 활성화를 관광활성화와 연계시켜야 한다.

어업유산 기반 공동체 육성, 빨배마을 만들기, 어업유산 중심의 지역 공동체 문화 계승 등 빨배 활용 협력체계 구축 및 주민 참여 확대, 전통빨배체험 활성화, 어업유산 접근성 제고되어야 하며 필수적 공공인프라 및 투자를 위한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 관광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안내시설, 표지판, 화장실, 편의시설, 숙박시설, 도로, 주차장 등 관광편의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수적이다.

1) 지자체와 주민의 역할

어업유산 활용의 기본은 주민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현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을 경시하는 유형유산 중심의 정책은 이미 그 한계 상황에 이르렀고 보호되어야 할 대상의 선정과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의 기회가 제공되고, 주민 스스로 유산정책의 입안과 집행에 관여하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 한 유산정책으로 인한 정부와 주민 사이의 갈등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⁵¹⁾

과거의 삶은 중요하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주민의 삶은 배려되지 않는 구도를 생산한 것이 현재의 유산정책으로는 지역민의 자발적인 유산정책 참여를 기대하기 어렵다. 주민과 유산을 분리시키는 유산정책이 있는 한, 문화유산과 자연유

51) 이석환, 도시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2008문화재청보고서. 2008. P.14. 참고

산의 시스템에 자율성을 부여하기란 어려우며 주민이 스스로가 좋아서 참여하는 자율적 주민참여의 구도가 유산정책의 기반에 마련되지 않는 한, 정책비용은 증가하고 정책수행도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주민으로부터 호감을 얻지 못한 유산정책은 언제든지 무너질 가능성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사회 중심의 어업유산 관광계획은 편익이 지역주민들에게 확산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법으로 지속가능한 어업유산 관광의 계획 및 개발, 운영 전 과정에서 다양한 절차와 방법을 통해 지역주민의 이해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종종 행정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쉽다는 우려가 있으며 주민들의 이해수준이 낮아 능동적인 참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도 적지 않은 것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⁵²⁾

[표 4-1] 이해관계자 및 역할(출처 : <http://www.mof.go.kr>)

이해관계자		역 할
공공	중앙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특성을 고려한 관광개발 기획의 균등한 분배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기본지침 수립 및 홍보교육 - 법제도적 기반 조성, 행정 및 재정적 지원 제공 - 지속 가능한 관광개발 정책의 수립 및 사후 평가
	지자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타당성검토, 사전영향평가 등 제도적 여건 마련 - 관광개발로 인한 사회 갈등의 예방 및 조정자 역할 - 지역사회 의견수렴 반영 및 능동적 참여 환경 조성 - 전문인력 육성, 투자자원 조달 및 자문 행정적 지원
민간	지역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주체로서 비전 및 목표 공유 -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과정 전반에 적극적 의견 개진 - 지속가능한 관광계획 과정 전반에 적극적 의견 개진 - 지속가능한 관광의 모니터링, 평가, 감시, 관리자 역할 - 자발적인 공동체조직 구성, 지역보전 및 관광해설활동
	관광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환경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태도 - 지속가능한 관광 행동지침 및 정해진 규칙 준수 - 관광자원 보호활동에 동참 및 관광윤리 실천

2) 지속가능한 어업유산 관광

지속가능한 어업유산 관광은 관광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지역사회 전체에 가능한 한 널리 확산되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편익은 극대화되고 관광으로

52) <http://www.prism.go.kr>(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 정책 연구)

부터 편익을 얻는 지역주민은 어업유산관광을 지지하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 관광 계획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정보지나 브로셔, 캠페인 홍보, 공청회, 설명회, 개별 인터뷰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사전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는 관계 전문가 자문 및 현지조사 등과 함께 공청회나 설문 조사를 통해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관광의 사회·문화적 지속성은 계획 및 개발 운영 과정에서 지역주민 스스로가 그들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될 때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⁵³⁾

지역의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며 지역정체성을 유지 또는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관광개발이 계획되어야 하고 단순한 정보 제공이나 일방적인 전달 차원의 소극적인 주민참여가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권한을 부여하는 능동적인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⁵⁴⁾

3) 관광산업으로서 어업유산

산업으로서의 관광이 지켜가야 하는 한계가 바로 삶의 남용으로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 존재해야 하며, 관광산업이 삶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현상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표현되고 있다. 관광산업은 방문객에 의해 발생하는 쓰레기가 관광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은 관광 현장에 예측된 삶에 관광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사회적 모순의 문제들과 인간 자체의 상품화 현상들이 발생된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대규모 지역의 개발프로젝트로 기인해서 지역으로부터 쫓겨날 운명에 처한 주민들의 삶에 대한 관심보다는 문화재보호법에 저촉되는 유산정책에 대하여 주민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갖게 되며, 현재까지 지역에 거주해 온 주민들의 삶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배려가 전제된다면 개발에 따른 주민 측의 피해를 금전차원의 보상이라는 전략으로 대응하는 정부에 대해서 주민들은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될 것이다.

문화유산 관광은 삶의 영유이고 삶의 표현으로서의 관광의 경계를 설정하지 않

53) <http://www.prism.go.kr>(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 활용정책 연구)

54) 이원희.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2007. P.48. 요약정리.

으면 삶의 파괴를 초래하는 관광의 현상을 맞이할 수 있으며 삶을 상품화하는 정도의 한계가 넘어서는 수치를 시험해보는 것은 삶의 한계를 시험하는 것이기도 함을 유념해야 한다.⁵⁵⁾

1.2. 교육적 가치 분야

어업유산 창의적 체험활동 및 방문체험 지원, 어업유산의 교육콘텐츠 개발 및 스마트 교육 지원 등을 통한 어업유산 교육 확대 및 체계화와 헤리티지채널 구축 역량 강화 및 어업유산 안내 및 해설 체계를 정립하고 고품질 어업유산 온라인 정보서비스 체계 마련하여 어업유산 활용을 위한 국제적 전문기관 설립 등을 통한 어업유산 교육콘텐츠 품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1) 갯벌어업의 다원적 기능을 토대로 관광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갯벌과 갯벌어업에 내재된 다양한 기능을 새롭게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어업유산관광 및 어업유산 교육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며 갯벌의 체험은 일반적인 채취활동에서 벗어나 갯벌과 갯벌어업의 새로운 가치를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설계하도록 하고 ‘갯벌 수산물 학습프로그램’과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가 항상 느끼며 접해왔던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지역의 이야기(Story)와 교육적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접근을 해야 한다.

2) 전통뽕배체험 활성화, 어업유산 접근성 제고

어업유산 기반의 관광자원화 및 지역 활성화, 어업유산 관광 프로그램 개발, 어업유산 단지 조성을 위한 관광자원화 등을 통한 인증제 및 자격제도 도입을 통한 향유 품질 제고와 어업유산활용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

3) 전문적인 인적자원 양성 및 활용

갯벌어업 전문해설사 양성은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갯벌어업 전문해설사는

55) 이원희. 전계서. 참고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수준에서 인증해설사 양성을 위한 기관을 지정하고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법이 고려되어야 한다. 양성기관은 수산인력개발원 등 기존 교육기관의 과정을 활용하되 갯벌어업 전문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과정과 심화과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갯벌어업 전문해설사는 현장에 투입되어 전문성과 충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과정으로 육성되어야 한다.

4) 갯벌어업 전문해설사 활용방안 마련

갯벌어업 전문해설사는 현장의 수요에 맞춰 과소 또는 과대하게 배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문가로서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갯벌어업 전문해설사는 지역민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프로그램을 충분히 소화하여 갯벌어업 관광 및 홍보 및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1.3. 관광적 가치 분야

1) 갯벌어업의 육성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

갯벌(어업)자원이 가지고 있는 잠재도와 가치(관광적 접근)도 부가적으로 고려하여 갯벌어업 육성과 연계시켜야 한다.(순천만 사례, 매년 300만 명 규모의 관광객이 방문) 갯벌어업의 산업화 주요 품종인 참꼬막과 연계한 관광모델로 양식단지 탐방 및 ‘대단위 갯벌어업 타운’(구매, 식당, 홍보전시, 문화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요소로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대단위 갯벌어업 타운’은 수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육성·발굴하고자 하는 정부의 ‘신갯벌 정책’을 일반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시 및 홍보하여야 한다.⁵⁶⁾

2) 대규모 복합산업화 사업지역과 연계된 관광모델 구축

대규모 복합산업화 모델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직접 구매·시식할 수 있는 종합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기존 표본이 진열된 전시관이나 일반인·학생 대상으로

56) 정명생.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2011농림수산식품부보고서. 2011. P.88. 요약정리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관리하는 습지보호지역의 갯벌생태전시관 등과는 차별화된 개념으로 추진한다. 정부기관, 단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 교육, 홍보할 수 있는 국제회의장 수준의 시설과 갯벌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국내외 도·소매상, 외식업체, 구매프로세서 등을 대상으로 요리공연 또는 시식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이 자율적으로 갯벌 관련 분야의 다양한 R&D 연구를 수행할 수 있고 갯벌어업의 새로운 가치 등을 알리행사와 배울 수 있는 시설 등을 조성함으로써 갯벌관련 종합 관광모델의 중심적인 공간으로 역할을 하도록 한다.⁵⁷⁾

3)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갯벌어업 관광 및 홍보·교육 프로그램은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수산물의 미래수요자인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갯벌어업에 대한 다원적 기능과 수산물의 중요성을 체계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현장교육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홍보·교육 기능을 강화하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교의 현장체험 학습으로 발전시켜 지역 어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어업의 소득원과 고용창출기회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⁵⁸⁾

2.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보성빨배어업 유산의 가치를 홍보하여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자긍심 고취와 한국관광시장의 외래관광자 방문증가에 따른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목적으로 함이 기본적 체계이다. 이를 위하여 보성빨배어업 유산의 관광상품화 요인을 추출하고 사례분석 대상지의 관광상품화 요인을 분석하고 어업유산의 보존계승과 관광 이미지 홍보의 극대화에 관한 두 가지 차원에서 관광상품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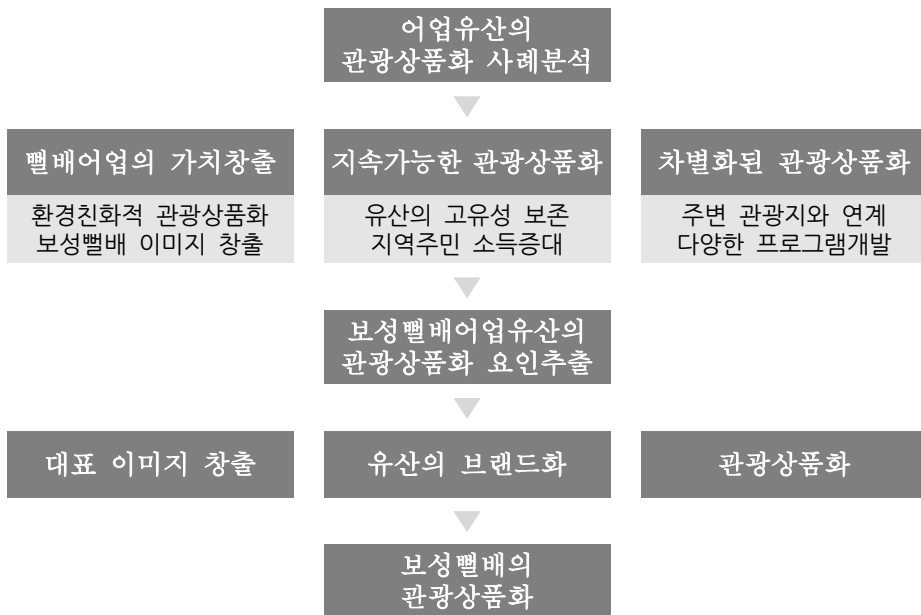
첫째, 어업유산자원의 보존 및 계승은 지역문화의 세계화와 지방문화의 활성화

57) 김덕성. 전계서. P.45. 참고

58) 정명생. 전계서. P.89. 참고

화를 목적으로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전통어업유산에 대한 가치 제고와 역사를 통한 문화 창조와 지방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지역적 전통미의 세계화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둘째, 지역 관광 이미지 홍보 극대화의 내용은 국민관광 진흥과 주변관광지의 효율적인 연계와 관광의 이벤트를 활용하여 어업유산관광의 활성화와 지방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이루어 외래관광자 유치 촉진한다. 또한 지역 차별화 상품 개발 촉진 및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특색 있는 관광 기념품 및 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지로서의 위상 정립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림 4-1] 보성뽕배어업 관광상품화 설계

2.1. 보성뽕배 스토리텔링 개발

1) 스토리텔링의 개념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란 스토리(Story)와 텔링(Telling)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기’이며 사건과 등장인물, 배경이라는 구성요소를 갖추며, 시작과 중간과

끝이라는 시간적 흐름에 따라 기술되어가는 양식이다.⁵⁹⁾

공간에서 적용되는 스토리텔링은 가치가 있는 사회·문화·과학과 다양한 이야기를 내포하는 이야기들을 선택하여 논리적·구조적 위계질서에 의해 다시 재구성하는 구조화를 통해 이를 다양한 매체 및 프로그램으로 구현한 후 관람객의 새로운 해석을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의도하는 수단으로 역할을 담당한다.⁶⁰⁾

일상생활에서 스토리텔링은 여러 가지로 유익하고 설득력 있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인류가 등장한 이래 스토리텔링은 인간끼리의 의사소통에 있어 늘 중심적인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⁶¹⁾ 스토리텔링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곤 하는데, 영화·비디오·애니메이션·만화·게임·광고 등의 원천적인 콘텐츠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때 스토리텔링은 지금까지의 텍스트 중심의 서사학에서 정의되어 온 개념들과는 다른 성격을 띤다.



[그림 4-2] 스토리텔링의 개념 구조

59) 최예정, 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2005. P.13. 요약정리.

60) 김은영.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전시공간계획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4. 요약정리.

61) 최예정, 김성룡. 상계서. P.15. 요약정리.

스토리텔링의 또 다른 의미는 ‘The action of stories’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활동과 이야기가 담화로 변하는 과정’을 뜻하며, story-tell-ing 등의 세 요소로 구성된 단어이다. 스토리는 이미 과거 완료의 것인 ‘이야기한 것’을 의미하고, ‘tell’은 구현되는 현재상황의 트렌드라고 할 수 있으며, 스토리텔링에서의 ‘tell’은 단순히 말한다는 의미 외에 시각은 물론 촉각이나 후각 같은 다른 감각들까지 포함하며, 여기에 ‘ing’는 상황의 공유, 그에 따른 상호작용성의 의미를 내포한다고 할 수 있다.⁶²⁾

2) 스토리텔링 방향설정

스토리(Story)발굴을 위한 기준으로 보성빨배어업 활성화를 위해 스토리텔링을 개발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를 두고 지역문화자원에 기반을 둔 스토리(Story) 발굴하기 위해 기준을 설정하고 그에 근거한 스토리텔링의 방향성이 존재하여야 한다. 이는 보성빨배어업의 지역문화자원 분석의 포괄적인 틀로 보성빨배어업 뿐만 아니라 추후 연계사업을 위한 근본적 흐름의 바탕을 구성한다. 따라서 보성빨배어업의 스토리(Story)발굴과 스토리텔링 형성에 있어 아래 두 가지의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1	보성빨배어업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것.	2	보성빨배어업만의 특색을 지니는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
---	-----------------------------------	---	--

[그림 4-3] 스토리텔링 형성을 위한 기준

보성빨배어업의 근원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를 포함하고 핵심적인 관광지로서 오랜 시간동안 빨배어업을 구성하고 이어져 내려오는 근원적인 가치 및 보성빨배어업을 구성하는 요인 및 지역민 다수가 공유하고 방문객도 쉽게 인지할 수

62) 윤병삼. 知覺된 스토리텔링 屬性이 地域브랜드 愛好度에 미치는 影響.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P.29. 요약정리.

있는 고창의 통일된 의미이자 가치를 창출하여야 한다. 나아가 보성군의 문화 및 관광 가치의 발전에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사회적 원형을 이루어야 한다.

보성빨배어업만의 특색을 지니는 문화예술을 접목시켜 차별화된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것과 지역의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지역적 특색을 담은 보성빨배어업의 이미지를 담을 수 있는 컨셉은 ICT 홍보마케팅, 문화예술행사, 이벤트 축제 등 다양한 문화적 콘텐츠와 예술경영에 실질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실현가치가 높은 구체적 컨셉이어야 한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민을 응집하여 유대감을 높이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정서적 컨셉을 말한다.

3) 스토리(Story)구현 적용 방향

스토리텔링은 스토리(Story)의 구조화, 구조화된 스토리(Story)의 구현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렇게 적용되어진 스토리텔링은 이용객의 체험과 해석을 통해 진정한 소통(Communication)을 유도함으로써 공간을 활성화한다. 이에 보성빨배어업이라는 장소에 적용되어지는 스토리(Story)의 구현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틀을 구성하고 이러한 스토리텔링은 보성빨배어업의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업유산의 가치 성장과 장기적인 지역성장을 위한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이해할 수 있으며 강력한 구심점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의 전략적인 소통과 유대의 틀로 작용 할 수 있다.



[그림 4-4] 스토리(Story)구현 적용 방향

또한 범주화된 어업유산 자원에서 수집되어진 스토리(Story) 키워드를 1차적으로 비슷한 어휘로 유형화하고, 이를 다시 앞서 말한 키워드 도출 기준을 가지고 국가중요어업유산이라는 상징적 특성을 고려하여 재분석하고 또한 지역 관광자원과 물리적, 심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되어있어 관광자원 연계차원으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

(표 4-2) 스토리(Story)구현 적용 분야

분야	내용
시각·공간·환경	사인물 등의 시각물, 외부공공시설물 등의 디자인 개선
ICT · 홍보	앱 개발, 미디어 콘텐츠 제작 등의 홍보 및 마케팅 전략
판매 · 유통	관광활성화를 통한 판매 및 유통 전략
공연·예술·전시	어업유산의 문화·예술적 콘텐츠 운영 프로그램
이벤트·체험	적극적 참여와 응집을 유도하는 기획프로그램
교육 · 개발	자생력강화를 위한 유산가치 및 지역민 참여형 프로그램

2.2. BI개발 및 캐릭터 개발

1) 보성군 상징 및 브랜드디자인 현황

A. 군화 - 철쭉

봄에 연분홍색 꽃이 피며 군내 전역에 자생하고 있으며 연분홍색의 꽃은 군민

의 슬기와 예지, 그리고 소박한 군민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다.

B. 군목 - 차나무

전국 차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어 보성하면 녹차로 알려져 있으며 늘 푸른 잎은 언제나 마음이 변하지 않은 성정을 상징하고 있다.

C. 군조 - 비둘기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로서 아름답고 인정 많은 우리 고장인과 잘 어울림.



D. 상징마크(CI) - 3경 3보향의 보성



- ㉔보배로움을 나타내는 다이아몬드의 형태에 푸른 산과 청정해역, 녹차와 보성소리 등을 시각화하여 3경3보향의 보성을 표현하고 있다.
- ㉕외곽의 다이아몬드 형태 : 보배로운 고장, 보성
- ㉖각 모서리 : 동서남북으로 뻗어 나가는 보성인의 진취성
- ㉗상단의 녹색 : 높고 푸른 산을 나타냄과 아울러, 불의에 굽히지 않는 보성인의 기개
- ㉘음각된 녹차 잎 : 전국 최대의 녹차 생산지임을 나타냄 중앙의 물결모양 (민중의 멋과 애환을 담은 보성소리를 시각화한 것)
- ㉙맨 아래의 청색 : 맑고 깨끗한 호수와 바다를 의미

E. 마스코트 - 의돌이와 다향이



보성군의 대표 상징물인 녹차잎을 의인화한 녹차요정으로 녹차잎을 머리에 이고 있는 남성인 의돌이(의향의 고장 상징)와 여성인 다향이(차의 고장 상징)는 청색과 핑크색의 단순화된 색상과 이미지로 깜찍하고 귀여운 느낌을 준다.

F. 보성군 재정명 천년기념 엠블럼



2018년은 통일신라 경덕왕(757년) 보성군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다가 패주군 등으로 개명된 이후 고려 현종 9년(1018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다시 보성군으로 불린 지 천년이 되는 해이며, 이를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한 상징으로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된 엠블럼은 보성의 젓줄이라 할 수 있는 보성강을 배경으로 대표특산물인 녹차 잎과 미래보성을 향해 나가는 진취적인 기상을 창의적으로 형상화하였다.

G. 브랜드슬로건



보성의 상징인 「보성녹차」에 대한 직·간접적 이미지 및 청정해역인 남해바다 테마관광 휴양지의 상징적 이미지를 생동감 있게 표현함으로써 보성군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희망을 시각적으로 담아냈다.




2) 보성빨배 브랜드디자인 및 캐릭터개발 방향성

A. 타깃 특성

- ㉠평균 체류기간 : 당일이 대다수, 1박 2일이 다수를 차지
- ㉡방문단위 : 가족단위의 방문객이 가장 많은 양상, 친구나 연인과 방문하는 경우 역시 다수
- ㉢방문동기 : 청정 별교갯벌 경관 관광, 갯벌 체험이 대다수, 일상탈출 역시 다수를 차지.

B. 소비 트렌드

-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과 행복을 위한 삶의 방식으로 '인생은 한번뿐이다'라는 모토의 '올로(YOLO)'가 소비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음.
- ㉡올로 문화 확산에 따라 여행 소비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광 소비시장 역시 성장세.

Pure	Green	Premium
		
<p>신뢰성 높은 성분의 자연주의 트렌드</p>	<p>환경에 대한 배려를 담은 지속가능한 친환경 상품</p>	<p>안전성·전통성·원료특성 품질이 뛰어난 프리미엄 상품</p>

1인가구의 증가, YOLO 열풍 등 생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소비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소비자의 신체적 건강과 심리적 만족까지 충족하는 나를 위한 가치소비

C. 키워드 도출

- ㉠보성빨배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 : 꼬막을 채취하는 어민들의 중요한 운송 수단이며 갯벌에서의 수산물 생산활동에 매우 중요한 빨배.
- ㉡국가중요어업유산, 어민들의 운송수단, 어민들의 생계수단, 갯벌 어민들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는 수단.



- ㉢별교 갯벌 :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별교 갯벌과 청정해역에서 자연 서식하는 꼬막을 비롯한 각종 해양 생태계의 보고.
- ㉣청정해역, 꼬막, 조개류, 어류, 갯벌 생태계의 보고, 갯벌 생태계의 터전, 갯벌 어민들의 삶의 터.



㉔보성빨배의 4계절 ; 4계절 함께하는 보성, 빨배

㉕보성과 빨배를 이어주는 보성의 4계절을 대표하는 축제 연계하여, 빨배와 함께 보성지역 홍보 효과.



봄
보성다향대축제



여름
보성전어축제



가을
서편제 보성소리축제



겨울
보성차밭빛축제

3) 스토리텔링적용 브랜드디자인 예시



4) 스토리텔링적용 메인 캐릭터디자인 예시



별이와 뽀이(정면)



별이와 뽀이(측면)

5) 스토리텔링적용 서브 캐릭터디자인 예시



칠게(뚝이)



낙지(락이)



바지락(선이)



짱뚱어(뚱이)



꼬막(진이)

6) 스토리텔링의 지역브랜드 및 캐릭터활용 사례

A. 정남진 장흥토요시장(국내)

④접근 : 모두가 통하는 장흥 토요시장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살거리가 있는 모두가 통하는 정남진장흥토요시장)

⑥친편일률적인 시설 현대화 사업이 아닌 과거 존재했던 점포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여 옛 전통시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하였음.

- ㉔ 할머니장터 : 65세 이상 할머니들에게 1만원을 지급하고 직접 기른 작물을 판매하도록 격려하여 노인일자리 창출과 시골장터 정취 구현.
- ㉕ 인구수보다 많은 한우 사육두수에서 착안하여 한우고기 판매 거리 조성 및 ‘홍어삼합’에서 착안한 먹거리 ‘장홍삼합’ 등 새로운 먹거리 개발.
- ㉖ 토요일 소고기 1,000원 경매 행사 등 다양한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구매 동기부여.
- ㉗ 다양한 특산품을 시중보다 10~30% 저렴한 가격에 판매.
- ㉘ 체험장 개설, 러브투어, 토산품판매장운영 등 프로그램 개발
- ㉙ 민속광장에서는 유명가수 초청, 각설이·옛장수 공연, 노래자랑 등 이벤트.
- ㉚ 탐진강변에서는 줄베타기, 민물고기 잡기, 투호놀이, 도자기 만들기 등 체험 행사 개발
- ㉛ 사진전, 골동품 전시, 야생화와 분재전시회가 열림
- ㉜ 먹거리 : 소고기, 표고버섯, 키조개 등 장홍삼합과 낚지, 육포, 매생이국 등



[그림 4-5] 장홍시장 브랜드 및 장홍토요일시장 만남의광장 전경

B. 정선아리랑시장(국내)

- ㉔ 접근 : 아리아리! 정선
- ㉕ 역사적 문화유산인 ‘정선아리랑(무형문화재 제1호)’를 매개체로 하여 문화예술의 무형적인 형태에 그치지 않고 ICT융합, 자생력강화, 지역관광산업개발 및 이벤트행사개발 등 네 가지 분야의 스토리텔링 사업으로 구축

- ㉔정선아리랑 역사와 문화적 컨셉을 시장에 접목하여 정선아리랑과 함께 시장의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 쉬며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계되어 함께 발전할 수 있게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 ㉕특히 정선아리랑의 축제적 요소를 십분 활용하여 정선오일장에 도입함과 동시에 정선아리랑 축제가 세계적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㉖전통체험 : 전통나룻배타기, 향토공예전시체험, 그네타기, 떡매치기 등
- ㉗공연행사 : 정선아리랑공연, 국립상임예술단, 난타, 여량모듬북, 관광객 장기자랑 등
- ㉘먹거리 : 곤드레밥, 콧등치기국수, 메밀전병, 메밀부침, 올챙이국수 등



[그림 4-6] 정선아리랑시장 전경과 공연행사장

C. 일본 오카야마현 구로시오 시장(해외)

- ㉙수산물 전문 시장을 컨셉으로 30년대 풍경을 본따 만든 실내장식으로 전통 거리 느낌을 재현 (지붕과 천막을 만들어 실내에서 실외의 분위기 연출)
- ㉚천장에는 거대한 생선 조형물을 설치하여 수산물 전문시장 분위기 조성
- ㉛또한 주변을 생선과 관련된 그림과 조형물로 분위기 조성
- ㉜매일 3회(11:00, 12:30, 15:00), 1m 50cm 정도의 거대한 참치를 해체하는 쇼를 벌여 이색적 볼거리와 바로 해체한 신선한 참치를 부위별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관광객 유치
- ㉝바베큐장을 운영하여 시장에서 구운 수산물을 즉석에서 직접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⑥구입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휴식공간인 야외 테라스를 운영
- ⑦참치 해체 쇼 견학 투어
- ⑧스시만들기 체험 및 시식



[그림 4-7] 구로시오시장 전경과 참치해체 쇼

D. 스페인 보케리아 시장, Mercat de la Boqueria(해외)

- ①1217년 바르셀로나로 들어오는 문 중 하나인 ‘플라 데 라 보케리아’에서 시골 농부와 도축업자들이 채소와 고기 등 생활필수품을 사고팔기 시작한 것에서 유래
- ②18세기에 바르셀로나가 개발되면서 그 출입문이 사라지고 람블라스 길 중심에 있는 산 조셉 수도원의 밑에서 장이 서기 시작
- ③상점들은 상품별로 블록화되어 있어 상가마다 특성을 살리고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한 간판, 가격표시 및 진열로 고객의 쇼핑을 돕고 있음
- ④어린이 요리교실을 만들어 부모가 장보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여 매출액을 증가시키며, 어린이들에게는 인스턴트 음식의 문제점을 교육하는 등 건강한 식습관 교육
- ⑤적절한 쉼터 조성
- ⑥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5개 국어(스페인어, 카탈루니아어, 영어, 프랑스, 일본어) 서비스 제공
- ⑦문화환경 조성 및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인들의 시장접근을 좀 더 용이하게 하여 자연스러운 소비를 유도

- ⑩소량의 식료품을 판매하여 관광객들 또한 부담 없이 시식할 수 있음
- ⑪다양한 문화강좌, 어린이 요리교실, 성인 요리교실
- ⑫방문객을 위한 시장 투어



[그림 4-8] 보케리아시장 전경

2.3. 보성빨배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빨배를 지속적으로 보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별교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빨배와 갯벌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 교육과 빨배, 갯벌과 관련된 예술적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1	2	3	4
보는 빨배	즐기는 빨배	맛보는 빨배	배우는 빨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빨배 제작소 ②빨배 전시관 ③갯벌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빨배 철인3종경기 ②빨배 소원띄우기 ③4계절 꾸미기 ④갯벌 보물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빨배 즉석요리 ②빨배 요리체험 ③빨배 요리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빨배 제작학교 ②갯벌 학교 ③빨배 학술대회

[그림 4-9] 특화된 상품과 프로그램코스 개발방향

1) 보는 뽕배

A. 뽕배 제작소



단순한 뽕배 제작 작업장 마련뿐만 아니라 뽕배의 제작에서부터 판매, 교육까지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 조성하며 열악한 뽕배 제작 환경을 개선하고, 뽕배 장인들을 위한 제작 공간을 마련하여 그 가치를 보존하고 뽕배 제작소 관람을 통하여 뽕배 제작과정과 함께 그 가치와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뽕배 장인, 지역 어촌계 등과 연계해 뽕배의 제작 및 구입에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뽕배의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보성군 자체 조례를 제정하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뽕배의 지속적인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뽕배 제작 및 구입 보조금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나아가 관람을 통한 교육 프로그램 연계한다.

B. 뽕배 전시관



뽕배 제작소와 연계하여 전시, 보성 배 관광상품판매까지 이루어지는 복합 문화공간조성하고 전시하여 방문객들이 폭넓은 관람할 수 있도록 하며, 뽕배 캐릭

터를 활용하여 즐거운 관람공간을 마련한다.

- ④ 빨배 소개 및 이용형태, 빨배의 역사, 발전과정 등 빨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 ⑤ 빨배의 제작과정 및 빨배에 대한 심층적 학습(모양, 재료, 사용기간별 빨배)을 위한 전시관
- ⑥ 세계 각국의 빨배와 그 역사, 이용형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관

C. 갯벌 박물관



빨배와 갯벌의 자연스러운 연계 관람 공간 마련하여 빨배와 갯벌의 상호유기적 관계를 느끼고 경험할 수 있도록,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벌교갯벌과 청정 해역에서 자연 서식하는 각종 해양생태계를 구성하여 다양한 관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며, 갯벌 생태계캐릭터를 활용하여 관람을 돕는 등 연령층 구애 없이 즐길 수 있는 관람공간을 조성한다.

- ⑦ 갯벌의 개념 및 역할 등 갯벌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빨배와의 연계를 통하여 갯벌과 매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전시관
- ⑧ 갯벌에 서식하고 있는 각종 해양 생물들을 학습하고 생태계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전시관

2) 즐기는 뽕배

A. 뽕배 철인3종경기



뽕배 및 갯벌을 즐길 수 있는 변형 철인3종 경기대회를 개최하여 보다 쉽게 뽕배와 갯벌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시상품으로 보성 벌교 특산물 및 관광상품 등 지역과 연계한 상품구성을 통해 홍보효과와 함께 긍정적 이미지 제고한다,

- ㉔뽕배 썰매대회, 사이클, 달리기대회를 개최하며 초등부, 중고등부, 일반부, 프 로어민부, 가족단위대상 등 세부적으로 운영한다.
- ㉕뽕배 썰매대회 : 뽕배 이용형태와 유사한 방식의 썰매타기 대회로, 이동하는 길이에 따른 진행.
- ㉖사이클 대회 : 갯벌 위에서의 사이클 대회로, 넘어지지 않고 이동하는 길이에 따라 진행.
- ㉗달리기 대회 : 갯벌 위에서의 달리기 대회로, 넘어지지 않고 이동하는 길이에 따라 진행.

B. 뽕배 소원띄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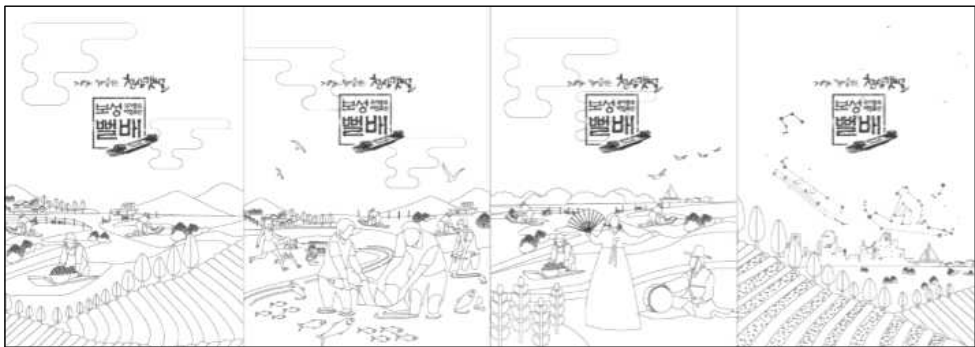


뽕배 모형의 등불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여 방문객이 직접 자신의 소원을 뽕배

에 담아 띄울 수 있는 행사 마련하여 직접 만든 빨배에 자신의 소원을 써 내려가는 시간을 통하여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시간(어민들은 풍어제의 의미로도 참여 가능)을 통해 아름다운 광경과 분위기 연출로 향후 보성빨배만의 감성 체험문화 행사로 자리매김한다.

- ④ 등불 만들기 체험 : 자신의 소원을 적고, 꾸미며 나만의 빨배 소원 등불을 만들 수 있는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시간을 마련.
- ⑤ 등불 띄우기 체험 : 자신이 만든 등불에 소원을 함께 띄워 올리는 감성 체험 문화행사로 멋진 장관을 연출.

C. 나만의 4계절 꾸미기



※계절별로 도안된 스케치 그림에 색을 칠할 수 있게 제공되는 용지

보성 별교의 4계절을 나만의 감성으로 꾸민 보성 빨배 4계절 꾸미기 체험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할 수 있으며, 완성된 4계절 그림을 간직하거나 전시하여 보성 별교에서의 추억을 남길 수 있다.

- ⑥ 4계절 꾸미기 체험 : 빨배의 4계절을 컬러링북을 통해 직접 꾸밀 수 있는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 ⑦ 빨배 4계절 전시 : 자신이 꾸민 빨배의 4계절을 출품하여 빨배센터 내 전시관에 전시할 수 있는 프로그램.

D. 갯벌 보물찾기



갯벌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즐겁게 참여 가능하고 보물찾기 상품으로 보성 별교의 특산물과 보성빨배 관광상품을 구성하여 홍보와 함께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만든다.

- ①갯벌 보물찾기 체험 : 갯벌 체험장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찾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남녀노소 제약 없이 친구와 연인, 가족과 즐겁게 참여 가능한 행사.
- ②시상 및 상품 : 찾은 보물에 쓰여진 번호에 따라 차등 시상. 보성 별교의 특산물과 보성빨배 관광상품을 상품으로 구성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확보.

3) 맛보는 빨배

A. 빨배 즉석요리



빨배를 타고 갯벌에서 직접 채취한 갯벌생물들을 가지고 가면 즉석에서 요리를

해 주는 푸드트럭 운영하여 갯벌 생물들로 만든 즉석 길거리 음식을 맛볼 수 있게 운영하여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는 공간 마련한다. 갯벌체험을 통해 채취한 갯벌생물들을 가지고 가면 즉석에서 요리해주는 독특한 형태의 푸드트럭 운영을 통하여 내가 직접 채취한 갯벌생물을 그 자리에서 직접 맛볼 수 있어 체험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제공하고 성인 체험객들에게는 갯벌생물 요리와 함께 맥주를 즐기며 친구들, 가족들과의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을 마련한다.

B. 빨배 요리체험



④보성의 4계절 식탁 : 해당 시기별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특색을 품은 계절 요리체험 진행

⑤꼬막 테마요리 : 별교꼬막을 활용한 꼬막 특화 테마요리로 어린이, 가족, 성인, 진로체험으로 세분화하여 요리체험 진행

C. 빨배 요리대회



갯벌생물을 활용한 요리로 대화를 개최하여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하고 학생부(초·중·고), 일반부, 프로부문으로 나누어 세부적으로 추진한다

다. 요리대회 상품으로 보성 벌교의 특산물과 보성빨배 관광상품을 구성하여 홍보와 함께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하고 갯벌생물을 활용하여 다양한 요리를 구상하고 직접 요리하여 출품하는 요리대회 개최이다.

요리전문가를 초빙하여 심사를 통하여 시상하며 시상품으로는 보성 벌교의 특산물과 보성빨배 관광상품을 상품으로 구성하여 지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보한다,

4) 배우는 빨배

A. 빨배 제작학교



빨배 장인들에게 배우는 빨배 만들기 교실로, 빨배 제작학교를 운영하여 보성 빨배에 대한 그 역사성과 가치를 되새기며 전통 빨배를 내 손으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교육형 체험 문화공간 '빨배 제작학교' 마련한다. 초보자 과정과 중급, 고급 과정으로 나누어 제작학교를 운영하여 일반 관광객에게는 체험, 전문가에게는 장인양성의 효과를 창출하고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서의 빨배의 지속적인 보전 및 활성화를 위하여 빨배 장인 및 지역 어촌계 등과 연계하여 빨배의 역사성과 가치를 학습하고 직접 빨배를 제작해 볼 수 있는 특별한 학습기회를 마련한다.

B. 갯벌 학교



이론만으로 끝나는 일차원적 학습이 아닌, 현장체험학습과 이론학습의 연계를 통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수업을 진행하며 직접 갯벌에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벌교 갯벌과 청정해역에서 자연 서식하는 각종 갯벌 해양 생태계를 관찰하고 직접 채취하고, 교실 내부로 돌아와 직접 보고 느낀 갯벌 생태계에 대해 이론으로 심화학습 하는 수업진행으로 보다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갯벌학교를 운영한다.

- ④갯벌 체험학습 : 갯벌 체험장에서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생생한 현장체험학습 진행.
- ⑤갯벌 이론학습 : 직접 오감으로 느낀 갯벌에 대하여 교실에서 이론으로 다시 정리할 수 있는 갯벌학습 강의.

C. 빨배 학술대회



보성빨배의 역사성과 그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 보성빨배어업 관련 학술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보성빨배의 역사적 고찰과 보전, 발전 방향 연구와 더불어 벌교 갯벌을 보전하고 자원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대회로 빨배 관련 학술적 논의 및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국내외 어업유산 관련 학술행사 추진과 세계중요어업유산 등재를 위한 보고서 및 부속서 작성을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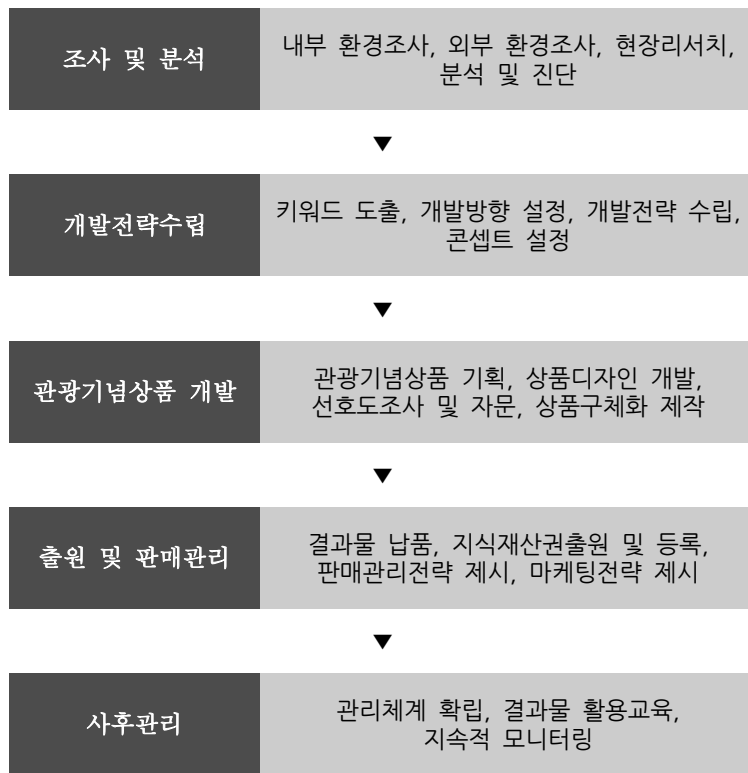
2.4. 보성빨배 관광기념품 및 문화상품 개발

한국관광공사는 관광상품을 “광의의 관광 상품으로 관광업체가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이고, 협의의 관광 상품은 여행 상품과 관광에 연관되는 일체의 서비스이며, 또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판매할 것을 전제로 이를 상품화한 것이다.” 즉, 관광 상품은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유무형의 경제재화와 서비스로 곧 관광기업에서 생산하여 판매 가능한 일체의 재화와 서비스의 결합물로서 정의한다.

관광기념상품은 물리적 실체는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경험을 안전하고 견고하게 하며, 실체를 부여함으로써 일상적인 경험을 비일상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편입시

키며, 관광 문화상품에서 중요한 의미의 고유성은 기념품의 역할을 통해 조명될 수 있으며, 고유한 기념품(authentic souvenir)이란, 선택 관광지 이외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관광지의 문화적 역사적 요소를 함축하고 상징하는 고도의 문화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⁶³⁾

보성 배의 가치를 표현하고, 보성빨배 캐릭터 및 스토리텔링을 활용한 보성 빨배 브랜드만의 차별화된 관광기념품 개발을 통하여 보성빨배만의 아이덴티티 확립 및 긍정적 이미지 확장으로 관광기념품 삽과 함께 주요 체험 교육 기관에서의 연계 판매를 통하여 홍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그림 4-10] 관광기념품개발 Flow chart

63) 박수진. 여수 세계 박람회 관광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P12. 참고.

관광산업은 지역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측면에서 미치는 영향이 크고 고부가가치의 산업이다. 이러한 관광산업 중 일부분인 관광기념품은 관광객의 선호도와 취향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지역의 이미지나 지역적 특성을 담고 있는 관광 문화상품의 개발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의 문화자원을 이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은 판매이익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또한 관광기념품은 관광목적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홍보하는 효율적인 수단이 된다. 기념품을 구입한 관광객은 기념품을 통하여 관광목적지를 회상하게 되고 구전을 통하여 기념품과 함께 방문했던 지역을 주변에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되기 때문이다. 관광상품산업의 활성화가 관광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지역의 특성 있는 문화유산을 지역 발전의 핵심요소로 간주하여 문화의 진흥을 위해 지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한 디자인 산업의 개발과 육성에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문화관광상품의 소비 형태는 지역의 문화적 상징물 등이 표현된 상품에 대한 판매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다.

지역 관광기념품을 통해 지역의 소재, 기법, 공예가의 유형적 생산 창출의 직접 효과를 통한 시장적 측면의 낙수효과를 만들 수 있다. 단순히 판매에만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를 관광객에게 심어주는 것으로 일반판매의 행위와는 구분되어 생각하여야 한다. 지역 유무형문화자원은 지역의 특성을 지닌 지역 관광자원으로 공예산업과 기업브랜드의 융합생산이 필수적이다.

1) 관광기념품 예시 - 보성쌀배 불펜



2) 관광기념품 예시 - 보성빨배 손거울



3) 관광기념품 예시 - 보성빨배 포스트잇



4) 관광기념품 예시 - 보성빨래 부채



5) 관광기념품 예시 - 보성쌀배 텀블러(일반형)



6) 관광기념품 예시 - 보성빨배 텀블러(고급형)



2.5.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

보성빨배어업유산 인근에는 보성차밭, 태백산맥박물관, 울포해수욕장, 비봉공룡공원 및 주암호와 대원사 등 다양한 보성군의 관광자원과 보성다향축제, 보성전어축제, 서편제보성소리축제 및 보성차밭빛축제 등 다양한 관광명소와 축제행사를 보성군이 보유하고 있고 인접 지자체의 순천과 장흥 등 지리적으로 근접한 거리에 위치한 많은 관광자원과 연계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즉 주변의 관광지를 방문한 고객을 빨배어업유산지역으로의 유도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제작할 필요가 있다. 어업유산과 주변관광지를 하나로 묶는 주제화된 관광코스의 개발과 프로그램을 만들어 관광객의 흥미와 편의를 제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림 4-11] 보성군 관광안내도

[표 4-3] 보성군 주요 관광지(출처 : 보성군청 홈페이지)

관광지	내용
보성차밭	보성차밭은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이루어진 곳으로 150만 평 규모의 차밭으로 조성되어있다. 전남 보성에 있는 대한다업관광농원은 대한민국 유일의 차(茶)관광농원이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차밭을 주위로 농원이 자리 잡고 있다.
한국차박물관	한국차박물관은 천혜의 차밭 경관과 인접하고 차에 대한 풍부한 콘텐츠를 담은 차 전문 박물관으로 우리 차 문화의 올바른 정립 및 연구와 보급의 중심점 역할을 한다. 또한 차를 이용한 차 문화 복원 및 차 문화의 다양성을 취득하여 전통과 현대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시대정신을 실현한다.
태백산맥문학관	소설 「태백산맥」을 통해 암흑에 묻혀버린 우리의 현대사를 보며, 동굴과 굶판을 건물 안으로 이끌어 들인다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고 절제된 건축양식에 한발 물러선 듯한 모습으로 문학관을 시각화시켰다.
율포관광단지	고요한 호수처럼 잔잔한 득량만의 고운 은빛 모래와 해송의 어우러짐이 아름다운 해수욕장으로 수심이 얕아 해수욕에 편안하다.
비봉공룡공원	공룡알 화석지에 대한 관광객의 방문도모를 위해 이곳에 2007년에 소규모 야외전시장과 관찰 데크를 마련하여 현장 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암산자연휴양림	제암산 자연휴양림의 계곡은 섬진강의 발원지로 여름에도 물이 차갑고 시원하여 여름피서지로 이용하기에는 좋은 최상의 휴식을 즐기는 휴양림이다.
일림산/용추계곡	일림산은 전라남도 보성군 웅치면과 회천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산으로 높이는 664m이고, 100만여 평에 달하는 철쭉군락과 보성강의 시초인 용추계곡이 있다.
대원사	건축물의 규모를 보면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多包系) 및 맞배지붕 형식의 건축물로 기단(基壇)은 전면에 1m 이상의 갑석축대(雜石築臺)를 쌓고 양면 및 배면은 얇은데 전면 중앙에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다.
주암호	보성군의 주변지자체 접경지역으로 호수가 깊고 넓으며 보성에서 흘러내린 보성강과 화순군의 동북천 및 용덕천과 합류되어 장쾌한 호반경관을 연출하고 있어 바다와는 또 다른 풍경을 맛볼 수 있다.

[표 4-4] 보성군 주요축제 현황

축제명	내용	시기
보성다향대축제	장소 : 한국차문화공원 (보성차밭 일원) 주최 : 보성차생산자조합 주관 : 보성다향대축제추진위원회	5월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장소 : 보성읍내, 판소리성지 일원 주최/주관 : 보성군/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광공사 등	5월
별교꼬막축제·문학축제	장소 : 별교읍 천변(별교읍 별교천 1길 19), 태백산맥 문학관, 장양갯벌체험장, 채동선 음악당 내용 : 별교 꼬막축제, 문학축제, 레저빨배대회, 채동선 공쿠르 주최·주관·후원 : 별교읍민회, 별교꼬막축제추진위원회, 보성군	10월 말경
보성차밭빛축제	장소 :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12월~1월
서편제보성소리축제	장소 : 보성읍내, 판소리성지 일원 주최/주관 : 보성군/서편제보성소리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부, 문화재청, 전라남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관광공사 등	5월
보성벚꽃축제	행사장 : 보성군립백민미술관광장 (보성군 문덕면 죽산길 168-14) 주최 : 문덕면민회 주관 : 문덕면민회, 보성벚꽃축제추진위원회 후원 : 보성군, 한국수자원공사 주암지사	4월
보성전어축제	장소 : 울포솔밭해변 특설무대 및 해수풀장 주최/주관 : 회천면민회/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	8월

2.6. 보성빨배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추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가운데 국가중요어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하는 방안이 국가중요어업유산 선정의 추진의 저변에 목적을 두고 시작하였다. 정부는 현재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어업에 대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으면 전통 어업문화를 보존과 침체된 어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자연경관이나 문화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유네스코 문화유산과 다르게 세계중요농업유산은 국제식량농업기구(FAO)가 세계의 다양한 농·어업 방식을 유지하고 보전하는 의미에서 지정한다. 제주의 경우 세계유산 등재 노하우가 있어 해녀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유리한 면이 많이 존재하는 편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죽방렴은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원시어업으로 남해의 멸치잡이가 대표적이다. 보성의 빨배어업은 배 모양의 도구로 갯벌에서 이동 및 꼬막 등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업이다. 신안 천일염업은 염전으로 바닷물을 끌어들인 다음, 바람과 햇볕으로 수분만 증발시켜 소금을 생산하는 방식 등 다양한 기술과 기법이 필요한 전통 어업법이다.⁶⁴⁾ 모두 오랜 기간 내려온 한국만의 독특한 어업 형태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에 보성빨배어업의 세계중요농업유산등재를 위한 지자체와 지역의 노력이 절실하며 또한 어업유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64) navy4944.tistory.com(해녀어업에 멸치잡이 천일염도 세계농업유산 도전)

V. 결론 및 제언

국가중요어업유산제도의 시행은 미래가치로 평가되는 문화다양성의 보전과 지속이 전통지식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문화다양성, 전통지식 등 도시화 및 난개발로 사라지거나 사라질 위기에 놓인 가치를 복원하고 보전하기 위한 국가정책을 의미한다. 또한 관광산업은 주 5일제의 시행으로 인하여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세대가 증가하고 있다. 관광의 욕구와 수요 또한 나날이 세분화되고 있으며 순수한 자연의 동경과 친환경을 찾아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관광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및 국외관광객을 구분하지 않고 물리적 거리의 개념이 무의미해지며 문화적 배경과 개성을 유지하며 공존해가는 관광의 형태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관광에 대한 수요 확대에 따른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관광을 통하여 삶의 활력과 재충전의 의미가 커지고 체험과 참여형관광은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경험하며 배우는 관광의 형태로 나타났다. 지역의 고유한 문화유산을 접하고 경험하며 이해하려는 기대를 충족시켜줄 문화 중심 관광의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광상품화는 필수적이며 관광객의 새로운 트렌드에 적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로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개념과 중요성을 배경으로 이론적 고찰과 국가중요어업유산으로 지정된 7곳의 현황파악을 하였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관광상품화의 관광 자원성과 생태적 환경요인, 보전의 가치성, 지역 공동체의 근거를 제시하고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깃벌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사례로 바덴해의 사례를 제시하였고 관광상품화의 방향성 또한 참고로 하였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관광자원성 요소가 관광매력의 중심이 되어 관광의 급속한 성장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며 어업유산지역은 다양한 관광시설 및 서비스의 성공적인 조화를 통한 어업유산의 가치상승과 관광효과를 목적으로 하며 다양하고 차별화된 체험의 문화행사와 무형문화를 발굴하거나 창조하여 또 다른 어업유산지역의 이

미지와 가치창조에 필요한 브랜드화를 실현하여야 한다. 국가중요어업유산 브랜드화의 과정은 단순히 알리기 위한 브랜드화가 아닌 유산의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화가 필수적이다. 어업유산이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고 지역민의 삶의 현장으로의 스토리의 개발이 필수적이며 그 기반에 근거를 둔 브랜드개발 및 캐릭터개발, 관광상품 등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에 국내와 국외의 전통시장 스토리텔링의 성공사례를 제시하였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전통과 문화를 다양하게 공유하며 특히 어업유산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포함하고 있는 어업유산은 정신적인 가치와 지적 호기심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관광욕구를 충족시키고 동시에 관광자원의 매력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어업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보존과 보전을 위한 방안과 지속가능한 관광상품화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업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국가중요어업유산에 등록된 어업유산이 7건이 있다. 그중에서도 보성빨배어업은 갯벌의 환경적 가치와 지역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역의 공동체적 삶을 경험하고 배우는 참여형관광의 좋은 사례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와 방문객의 만족을 얻는 관광상품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보성빨배어업은 전남은 물론 한국을 대표하는 어업유산의 보고이며 훌륭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지만 브랜드화 및 홍보의 미흡함이 존재한다. 이러한 현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 외래 관광객유치와 활성화를 위한 보성빨배어업의 차별화된 관광상품화 방안으로 지역의 삶과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스토리텔링의 발굴과 그 스토리를 기반으로 브랜드 및 캐릭터개발의 예시를 도출하였다.

역사적배경과 삶의 현장인 관광자원과 어업유산 지역의 이미지가 접목되어 지속적 어업유산 관광상품화의 공통적 특성으로는 첫째, 국가중요어업유산의 보전과 가치 재창출 둘째, 어업유산지역의 고유문화를 관광객이 체험할 수 있는 관광상품의 다양성 셋째, 관광지역 고유의 이미지를 느낄 수 있는 브랜드화 및 프로그램개발로 분석되었다.

이들 분석요소에 근거한 보성빨배어업 관광상품화 방안은

첫째, 국가중요어업유산 지정의 이미지를 관광상품화 전략으로서 보성빨배어업

유산의 가치 재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상품화, 문화의 고유성과 보전을 특성으로 하며 빨배어업유산 가치 재창출을 위한 세부적 내용으로는 빨배어업유산의 지역문화유산으로 승화시키고 지역대표이미지화를 실현하여 보성빨배어업 유산의 관광자원에 대한 재인식을 고취하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지속가능한 관광상품화의 내용은 어업유산에 관한 전문적 설명과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관광상품화를 통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관광상품의 다양화와 차별화 방안으로서 지역문화행사 연계의 관광상품화와 주변관광지와의 연계, 주제화한 관광상품화로 세분화되었다. 지역문화행사 연계의 관광상품화 방안은 지역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거나 스토리텔링하여 지역문화의 홍보와 설화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화, 지역축제와 어업유산을 주제로 한 지역축제, 이벤트와의 접목 방안이 제시되었다. 주변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은 지자체의 문화권을 연계한 관광상품코스 개발과 인근 지자체의 관광객까지 흡수하는 연계관광코스화가 제시되었다. 스토리텔링으로 주제화한 관광상품화는 어업유산을 주제로 한 관광상품 코스화로서 체험관광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연구되었다.

셋째, 보성빨배어업의 브랜드화와 빨배를 지속적으로 보전 및 발전시키기 위하여 별교지역 방문객을 대상으로 세분화된 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빨배와 갯벌에 대한 다각적인 모색을 통해 전통어업과 밀접한 갯벌의 생태적 가치 교육과 빨배, 갯벌과 관련된 예술적 활동 등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관광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안으로는 대표 전통음식의 개발, 안내 시스템의 정비, 지역특산품의 관광상품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현존하는 어업방식으로 전통적 어업지식과 생태적 환경을 보호하는 의미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므로 환경의 가치도 중요한 요소로 인정받아야 한다. 선행연구가 거의 없고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또한 2015년에 시작되어 7곳에 불과하다. 유산의 브랜드화는 국가중요어업유산이 보존되고 관광상품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그 과정에서 지역의 문화와 색채가 담기는 스토리텔링 기반을 포함하는 형태가 필수적이며 관광상품화의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전남지역은 어촌, 어업, 어민 등 어업유산의 대상이 되는 자원의 비중이 크며, 특히 전통어업과 전통지식의 근간이 되는 마을어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국가중요 어업유산 자원이 풍부하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은 이러한 자원을 계승하고 보전함으로써 어촌의 생태계 보존, 마을공동체 지속, 소득향상을 꾀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국가중요어업유산의 가치로 생태환경, 전통지식, 문화 등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이후 연구의 과제로 국가중요어업유산간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상품 개발도 연구되어 발전시켰으면 한다는 제언을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학위논문

- 김은영. 스토리텔링을 적용한 전시공간계획 연구.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박수진. 여수 세계 박람회 관광 문화상품개발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윤병삼. 지각된 스토리텔링 속성이 지역브랜드 애호도에 미치는 영향. 전주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15.
- 전명숙. 경주지역 세계문화유산 관광상품화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 주남희. 국가농어업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대학원 문화유산학과 문화재법정책전공. 박사학위논문. 2016.
- 차준성. 갯벌 환경 개선을 위한 생물학적 기초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5.

국내문헌

- 강승진. 제주해녀의 국가중요어업유산지정 추진과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2015.
- 김덕성. 두우리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 방안. 2012영광군 보고서. 2012.
- 김동주. 순천만갯벌의 보전 및 이용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정책과제 2016-02. 2008.
- 김 준. 섬 자원 이용형태와 지속가능한 섬 발전 전략. 광주전남연구원 정책과제 2016-02. 2016.
- 김 준. 국가중요어업유산 자원발굴과 보전방안. 광주전남연구원 정책과제 2017-25. 2017.
- 백신영. 안병원. 김도희. 갯벌조업 효율화를 위한 운반기 개발. 목포해양대학교 논문집. Vol.13 No.- [2005]. 2005.
- 이석환. 도시재생을 위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방안. 2008문화재청보고서. 2008.
- 이원희. 문화유산 관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화재 정책 연구용역 보고서. 2007.
- 정명생. 갯벌어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2011농림수산식품부보고서. 2011.
- 정상우. 문화유산 활용 종합계획 수립 및 제도 정비 방안 마련 연구. 문화재청 연구보고서. 2013.
- 최예정, 김성룡. 스토리텔링과 내러티브. 글누림. 2005.

전자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tour.go.kr>

국가중요어업유산 홈페이지 - <http://www.국가중요어업유산.kr>

국가환경기술정보시스템 - <https://www.konetic.or.kr>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 - <https://www.gogung.go.kr>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 www.fao.org

국립수산과학원 남서해연구소

동아닷컴 - <https://www.donga.com>

두피디아 포토커뮤니티 - <http://www.doopedia.co.kr>

보성군 통계연보

세계요농업유산 - www.giahs.org

완도군청 홈페이지 - <https://www.wando.go.kr>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 <http://encykorea.aks.ac.kr>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http://www.mof.go.kr>

현대해양 - <http://www.hdhy.co.kr>

Abstract

Korea began establishing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based on the Globally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s (GIAHS) in 2013. Seven places have been designated national important fishery heritage properties so far. With the revival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fishery heritage properties were separated from agri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nd given a clear, distinct purpose. The haeyeo, Jukbangryeom, mudflat fisheries, and salt evaporation ponds were the first to be designated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properti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emphasizing that the preservation and continuation of biological and cultural diversity, which are considered to be future values, must begin with traditional knowledge. Korea is also establishing a national policy to restore and preserve biological diversity, ecological services, cultural diversity, traditional knowledge, and other values that have disappeared or may disappear with urbanization, industrialization, and overdevelopment. Among them is the system of national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properties.

Just like the Korea Important Agricultural Heritage System,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must preserve and manage heritage properties and generate diverse values and inheritances for future generations for the purpose of branding fisheries heritage and tourism

resources. To do this,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must also enhance biological diversity, preserve and utilize traditional knowledge of biological resources, and expand ecological service values.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is pursuing this value, and their actions are not only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ir goal of maintaining and continuing traditional fishery knowledge, but also to influence preservation. Therefore, their scale is quite large. The goal of the Boseong Tidal Flats Fisheries heritage property is to preserve the unique mudflat and sea utilization and fishery culture of the region, the fishing village scenery, the diversity of halophytes, marine animals, and plants, and other fishery systems. And to revitalize the fishing industry and villages, the Boseong Tidal Flats applied for and became designated as a Korea National Fisheries Heritage property in 2015.

National fishery heritage properties refer to traditional fishery activities and all resulting outcomes such as coastal landscapes, maritime culture, and fishery activities. They are lifestyles that were formed and developed by fishermen and women over time as they adapted to an ecological environment formed around the sea. To be recognized as a national important fishery heritage property, the traditional fishery activity must be taking place, and there must be a system established to continue this traditional fishery activity or traditional knowledge. To be designated a national fishery heritage property, there must be a key region where the traditional fishery activity is taking place, and there must be a certain space formed by the traditional fishing activity. This not only includes the

sea, but also the areas in which the marine flora and fauna live. The fishery heritage system designates unique idioms and relevant places, but more than anything else, it emphasizes the presence of heritage inheritors and sustainability.

The Jeollanam-do province has a large portion of mudflat fisheries heritage properties. The tidal flat is very important as a fishery tool that migrates and transports the mudflats, and it must be treated as a value that draws interest in promoting tourism. Also, the fisheries at the Boseong Tidal Flats are closely linked to national wetland policy, and most of the fishing is done in common village fisheries. In particular, tidal flat fisheries at mudflats and coastal wetlands are important spaces for village fishery communities. This area is currently partitioned into various marine sanctuary areas such as a Boggy Ground Reservation, a Ramsar Wetland, a UNESCO Biosphere Reserve, and a World Tidal Flat Heritage. Therefore, even when establishing a revitalization strategy for tourism among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properties, the strategy must be established in line with a conservation strategy of marine ecological resources.

The value of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ites, including fishing values, their utilization for promoting tourism, and marine cultur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policies are very inadequate. Not only the tourists visiting the region, but also the fishermen and women lack awareness and promotion of fishery heritage. Even the residents of these areas do not know about their fishery heritage, and even if some do,

they only recognize it as perhaps one of the policy projects of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Therefore, th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of the Boseong Tidal Flats heritage must start with the fishing culture and life of the fishermen and women, and the efforts must maintain the ecosystem of the coastal wetlands and fishing grounds. This requires active participation of the profits of the fishermen and women, the consumers that consume the marine products, and the tourists of fishery heritage properties or marine culture. The fishery heritage sites, especially those designated by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System, must promote sustainable fishery activities to fishermen and women, and consumption that values the fishery heritage and travel that does not harm the ecology of fishery heritage sites to consumers. Like the Cheongsando Gudeuljangnon or the Jeju Batdam, the national important fishery heritage properties must be promoted to world agricultural heritage properties, and that requires enthusiastic efforts by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articipation by the local citizens. Furthermore, training programs are essential for transferring fishery heritage. In the case of the Boseong Tidal Flats, knowledge of the mudflats structure and production skills must be transferred, but it is difficult to maintain only with personal, local government, or local community effort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and the visitors of the heritage areas must find a way together.

Storytelling and branding must be considered very important factors when it comes to national important fishery heritage properties. Local

governments have their own brands and characters, and they are continuing to create new characters today as they think about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their regions and how to utilize them. They are creating brands and characters from their unique imageries to breathe new life into their regions. For the imageries to be connected to the national important fishery heritage properties or fishery heritage sites, they must be planned in advance. Furthermore, it is important for the various storytelling factors of a fishery heritage site to be integrated, linked, and incorporated into a brand or character, in order to evolve a simple, sightseeing fishery heritage tourism site into an experience-based tourism site where tourists can understand and experience the story of the region.

This essay presents examples of branding the Boseong Tidal Flats heritage property with storytelling, and we must not only plan, but also apply and put it into practice to promote the tourism of the Korea Important Fisheries Heritage properties. Also, this essay seeks to maximize tourism revitalization in connection with the tourist sites around Boseong-gun.